



‘광복절 행사 불허 - 거리로 나온 시민’



▲ 정부의 광복절행사 불허방침에 항의하여 '이명박 타도'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오현 • 2 / 통일원로를 찾아서 · 류금수선생님을 뵙다 2 임미영 • 6 / 기고 · 고향의 품과 같은 “민남의 집” 뜨락에서 조순택 • 11 / 기고 · 이명박정부는 국민을 탄압하는 악행을 멈추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임미영 • 14 / 회원마당 · 남도 빨치산을 읽고서 김재선 • 16 / 감옥에서는 편지 김명호 외 6인 • 19 / 기고 · 김명호 교수의 재판 결과를 보고 강내희 • 24 / 산행기 • 27 / 시사강좌 ·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과제와 방향 강정구 • 29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34 / 탄원서 • 36 / 슬픈일이 있었어요 • 38 / 이런일이 있었어요 • 40 / 재정보고 • 53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54

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o.or.kr 이-메일 : yangsimso@harmail.net

조국해방과 민족해방은 자주통일로 완성된다

- 분단고착, 역사왜곡, 국론분열 몰아온 건국60년 행사-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 회장

8.15조국광복 63돌을 맞았다

강도 일제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민족해방을 이루어 낸 온 겨레의 명절이다.

그러나 광복절은 일본의 과거범죄를 청산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새로운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자주 통일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는 남.북.해외가 함께 하는 '조국통일범민족대회'를 열어 왔고 6.15공동선언 이후에는 남.북 정부당국까지 함께 하여 평양과 서울에서 번갈아 '8.15민족통일대회(축전)'를 열면서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앞당기는데 힘을 모았고 독도영주권 주장, 야스쿠니신사참배, 역사교과서 왜곡, 평화헌법개정 시도 등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와 재침야욕에 공동 대응해오기도 했다.

그런데 2008년 광복절은 이 같은 우리민족이 누리고 지향하는 경축명절이 훼손되고 있었다

항일독립투쟁에서 산화해간 선열들과 민족해방투쟁사가 모독당했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이른바 '건국 60년 행사'가 광복절의 의미를 철저히 왜곡시킴으로서 민족해방영광과 분단극복의 민족적 과제를 지워버리려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8.15일 경복궁마당에서 '제 63주년광복절 및 건국60년 중앙경축식'을 치렀다. 독립유공자 뿐만 아니라 건국유공자, 1948년 태어난 건국동아, 1948년 임명된 건국공무원과 과독광부와 간호사, 베트남 참전자 등도 초청되었다. '광복회'가 '건국60년 및

제 63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이란 행사 명칭에 항의하여 '광복'을 '건국'의 앞자리로 옮겨 치룬 행사였지만 내용은 철저하게 건국60년 경축행사였다. 이명박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광복'이란 말은 단 두 번 지나가는 말로 거론했을 뿐이고 '나라의 회갑'이라며 건국60년에 대해서는 10여 차례, '앞으로 60년'과 '새로운 60년'에 대해서도 다섯 차례씩 말하면서 대한민국 건국60년은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라며 연설의 상당부분을 건국60년 찬미로 채웠다. 또한 '신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른바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한 국정운영 방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국정운영하는데 '기본'과 '안전'과 '법'과 원칙 '신뢰'등을 꼽으면서 특히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나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관용이 있을 수 없음을 실천으로 보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바로 광복절에 폭압통치를 예고하는 만행을 보여주었다.

도대체 광복절의 의미가 어디 있는 것인가. 광복의 단순해석만으로도 억눌림으로부터 빛나는 회복이다. 억압과 착취로부터의 해방,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등이다. 그런데 법과 원칙을 내세운 이명박정부는 바로 광복절의 축전퍼레이드를 비롯한 광복63주년 기념 8.15민족통일대회 추진위원회가 열기로 한 광복절 행사를 불허하고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은 색소물 대포와 사복경찰을 풀어 난폭하게 진압했으며 무고한 시민 등 158명을 폭력으로 강제연행했다. 경찰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세종로-태평로-서울시청앞 도로 등을 전면통제하고 이곳으로 통하는 수십 개 도로들을 경찰버스로 막아세웠다. 서울광장과 8.15문화제가

예정되었던 청계광장은 철통같이 봉쇄되었다 이것이 법과 원칙인가. 광복절을 기념하고 통일을 다짐할 자유도 없단 말인가. 집회시위의 자유, 행복추구권, 부당하게 체포·구금당하지 않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유린되고 있었다.

정부의 건국60년 행사는 곧바로 국론분열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독립유공자 유족회, 민족자주연맹,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 단체협의회 등 소속 60여 민족단체들은 경복궁 행사를 ‘한일합방을 인정하여 식민지배를 미화하려는 반민족적 행패이고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상실케 함으로 헌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경축식 참가를 거부하고 탑골공원에서 ‘8.15광복절 63주년 기념 국민대회’를 열었는가 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역사왜곡 국민분열 헌법무시 등을 들어 정부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효창공원의 백범묘소를 참배하며 광복절을 건국절로 고치려는 이명박 정부를 강도높게 규탄했다. 또한 ‘광복63주년기념 8.15민족통일대회추진위원회’도 탑골공원에서 ‘역사 왜곡규탄, 식민잔재청산, 독도수호 민족결의대회’를 열고 ‘군국주의부활을 기도하는 일본과 그에 발맞추어 민족사를 부정하는 친일잔재세력들의 망동을 규탄했다. 추진위원회는 다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등 각계 대중과 평화와 통일운동단체성원 5,000여명이 모여 ‘광복절 63주년민족통일대회’를 열고 국가보안법폐지, 6.15 10.4선언이행과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 등 대북적대정책과기, 주한미군과 살인무기 철거, 예측적 한미동맹해체, 광우병 쇠고기수입철폐 한미FTA 비준저지 등을 결의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백범기념관에서 8.15민족통일대회를 열고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인적, 물적피해에 대한 사죄에 보상. 독도 강탈기도와 제일 총련동포에 대한 탄압책동 중단을 촉구하는 6.15실천공동위원회 공동성명과 함

께 특별성명을 내어 ‘이명박정부의 건국절기도는 일제에 항거한 독립투쟁의 역사와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의 사명을 부인하고 분단체제를 고착화하는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건국 60년행사는 경복궁마당의 경축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거리마다 건물마다 각종 현수막과 홍보물로 도시모습을 바꿀 정도였고 정부종합청사건물엔 대형태극기 바탕에 ‘경축대한민국60년’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 등 문안이 들어간 현수막이 걸려 있다.

광화문복원공사 칸막벽좌,우로는 무궁화에 떠받친 태극무늬와 숫자 60을 형상화한 대형홍보물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물 현수막은 건국60년 추진사업의 일부 모습에 불과하다. 상상을 뛰어넘는 추진사업이 정부기구를 통해 준비되고 있었다.

이른바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는 예산 279억원을 들여 경복궁마당의 ‘중앙경축식’을 비롯하여 ‘대한민국건국60년축하’ 큰올림한강축제 ‘등 86건의 공식행사와 민간차원의 행사가 계획되어 있고 국무총리실 산하 ‘건국6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대한민국건국60년 전야축제’등 대한민국건국경축행사 8건을 비롯하여 700만 해외동포자금심 고취사업(7건), 건국의 의미상징화사업(4건), 민족정기선양을 위한 호국보훈사업(7건), 대한민국60년의 학술적의미고찰(14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문화축전(9건), 대한민국60년을 조명할 수있는 전시회(9건), 산업발전조명 및 미래산업제시(2건), 건국60년 산업발전관련방송기획 등 60개의 중요사업을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참으로 놀랍고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건국60년경축식’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과정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었다. 이명박정부는 반민족적

역사왜곡을 불러올 건국절 지향의 각종사업을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었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식에서 올해를 건국60년으로 규정했고 대규모 기념행사를 지시한 바 있다. 2007년 11월 보수우익인사가 대거 참여하여 민간차원의 '건국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뉴라이트를 대표하는 박효종 서울대교수 김영호 성신여대교수 등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지난 4월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에서 말한 '건국60년기념사업단'을 출범시켰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4.16일 대통령훈령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5.22일 민관합동기구인 역시 위에서 말한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에서 밝힌 60개 사업이 그것이다. 조.중.동은 일제히 특집 기사로 연속하여 쏟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당 정갑윤의원 등 13명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정권의 이념적 배경은 이른바 뉴라이트였다. 또한 광복절대신 건국절기념행사를 이미 2003. 8.15때부터 열어온 것도 이들 극우보수 두뇌집단이였다. 이들은 일제의 식민통치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제 사회를 부정하는 이북과의 통일을 부정한다. 단선 단정으로 분단고착의 결정적 역할을 한 이승만의 친미반공노선과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를 세운 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 유신폭압과 노동착취 속에 거둔 박정희의 산업화만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의 반동적 역사인식은 '대안교과서' '한국근대사' 등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바로 유관순을 체제를 부정한 불순분자로,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중군위안부를 자발적인 경제단체나 성매매업자로,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를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건국공훈이 없는 빈라덴같은 인

물로,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일제식민지대를 근대국민국가수립능력이 축적된 민족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해방 후 전민특위를 빨갱이들의 사주에 따른 음모를 펼치기 위한 조직으로, 5.16쿠데타를 유능한 엘리트장교들이 지배세력을 교체한 근대화혁명의 출발점으로, 박정희는 비타협적 권위주의자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이끈 영웅으로, 전두환은 구국의 결단을 통해 혁명과업을 완수했다'는 등이다.

이같은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의 두뇌집단을 배경으로 집권한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은 스스로 말했던 실용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이념적 편입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지난 정권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건국절 집착이 그렇고 비핵.개방3000구상(지금은 상생과 공영이라고 함)으로 대표되는 대북대결 정책,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3각동맹추구의 친미친일 정책, 친자본 반노동정책, 대기업의 민영화추진 등 사회공공성약화정책,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하려는 공안탄압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박정희시대의 개발드라이브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국가보안법과 긴급조치로 죽임을 당하고 감옥가는 폭압 속에서 민중들의 저항력도 성장되어왔다. 밀어붙여 해내겠다는 오만과 독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어린 소녀들이 밝히기 시작하여 100만 촛불이 되어 저항한데서 보여주었다. 또한 근. 현대사만도 갑오농민전쟁과 3.1항일투쟁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월민주항쟁 등에서 보여주듯 불의와 모순 착취와 억압에 대한 우리 민중의 지칠 줄 모르는 저항정신을 가버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한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시

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의 민족해방을 기리고 일본의 과거범죄와 일제잔재청산 그리고 분단된 조국을 자주통일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광복절은 어떠한 명분과 가치로도 대체될 수 없다. 또한 수천년을 한뼉줄로 살아오면서 외래침략을 물리치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발전시켜온 우리민족이 굳건하게 이 땅을 지키고 있는 한 분단고착과 수천년 민족사를 왜곡하는 어떠한 불순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은 지체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남북사이의 화해협력과 자주통일은 우리민족절대다수의 염원이고 지향이다. 공동선언 이행의지표명과 함께 끊겨진 당국자대화에 나서야 하고 대북식량·의료지원과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주의사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당·사회단체의 민간교류사업과 금강산관광도 재개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범민련 범청학련 한총련 한청에 대한 이적규정은 철회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일제식민지배수단의 잔재이고 냉전시대의 산물이다. 6.15공동선언시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이 반통일 악법은 더 이상 존치될 명분을 잃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이 법으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를 당장 석방되어야 한다.

부정비리재벌총수와 기업인들은 사면하면서 노동조합지도부를 구속·수배하는 친재벌 반노동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노동3권 보장하고 비정규직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진영옥 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 등 모든 구속노동자를 석방하고 이석행 위원장 등 노조원들의 수배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민주주의 압살하는 공안탄압 중단하고 어청수정찰청장을 파면해야 한다.

사상·양심과 집회·결사의 자유,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은 양보할 수 없는 국민기본권이다. 진보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를 비롯한 촛불문화제와 관련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를 석방하고 진보연대 지도부와 조계사농성대책회의 일꾼들에 대한 수배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이런입니다

| 2008년 회원 시사강좌 | 8월 강좌 있습니다

- 일 시: 2008년 9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 장 소: 낙성대 만남의 집
- 강 사: 시인 도종환 님
- 주 제: 미정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지난여름의 기후와 정세 등 삶의 조건은 우리를 지치게 하였습니다. 가을을 맞아 심기일전하여 몸과 마음을 든든히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도종환 님을 모셨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통일만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야

- 80평생을 오직 하나의 신념에 바치다 -

임미영 | 양심수후원회 사무차장

*지난 호에 이어집니다.

류금수 선생님은 평양에서 더없이 너그럽고 훌륭한 김일성주석님을 만나본 것에 고무되어 몸과 마음을 한껏 단단히 하고서 삼팔선 이남으로 내려와 다시 여맹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의 조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느슨하고 중구난방인 면이 있지만 그때는 아주 조직력이 뛰어났지. 조직력이라는 것은 결국 하고자 하는 운동의 목적을 이루는 기초라 할 수 있지. 그래서 다시 시여맹 군여맹을 조직하여 사회주의 활동을 해나갔지. 그 기초조직을 튼튼히 하는 것이 모든 운동의 향방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다 해도 다시 조직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

선생님은 충청북도에 파견되어서 청주에 내려가 윗선에서 정해주는 아지트에 들었다. 그곳에는 국민학교 동창이 좌익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서 한밤중에 두 내외가 막 싸움박질을 하더라구. 아마 의부중 같은 걸로 싸웠나봐. 그러는데 여자가 분에 못이겨 튀어나가더니만 경찰에 가서 찔렸지. 아무 손도 못쓰고 그 남편하고 내가 붙들렸어. 지금도 그 이름을 선명하게 기억해. 명덕국민학교를 졸업한 안○○라고... 노래도 잘하고 아주 좋은 친구였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 길로 청주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청주감옥에서 6개월을 감옥살이를 했다.

“거기에서 박아무개라는 검사가 내 담당이었는데 나중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뜻밖에도 그사람이 우리쪽 사람이었던 거야.

아마 나의 당성을 시험하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관선

변호사를 선임해주면서 탈당서를 쓰면 감옥에서 꺼내 준다고 했던 것 같애”

하루는 위에서 시찰이 나온다고 해서 수감자들이 소내 대청소를 하였다. 선생님들은 하릴없이 수의에다가 청색의 실로 자수를 놓고 있었는데 대뜸 그 검사가 선생님에게 다가오더니 물음반 호통 반으로 말했다. “자네가 류금수인가! 그래 끝까지 싸워볼 작정인가?”

선생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신념을 지키며 흔들림없이 악착같이 버텼다.

그 일 후 곧 집행유예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오게 되었다. 집에서는 선생님을 어떻게든 그런 활동에서 떼어놓으려고 갖은 구실을 다 끌어대다가 결국에는 선생님을 취직을 시키야겠다고 하여 8촌 오빠를 따라 기차역에 가게 되었다. 선생님은 도망갈 기회를 노리다가 오빠가 기차표를 끊고 있을 때 살짝 기차역을 빠져나와 청주에 있는 어느 여관에 숨어있다가 가족들을 따돌리고 겨우 여비를 마련해서 서울로 갔다. 그때 서울은 이승만일당이 미군정을 등에 업고 좌익활동가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있는 아주 엄혹할 때였다. 이

시기에 중앙여맹 시여맹 활동가들이 거의 일망타진되었다

선생님도 그들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신당동 뒤골목 을지로 6가 중간접선지역에서 붙들리고 말았다.

선생님은 수도경찰국으로 넘어가서 모진 취조를 받았다. 시여맹원이 다 붙들려서 선생님만 붙들리면 중앙여맹으로 치고 들어갈 태세였지만 선생님은 아무것도 발설하지 않고 더욱 더 강하게 버텼다. 그런데 전에 학생운동 지도하러 대학생신분으로 지방으로 파견되었던 이 아무개씨가 수도경찰국 경찰주임으로 와있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선생님을 대뜸 알아보고는 선생님에 대한 것은 들어 익히 알고 있다고 하며 복에 올라갔더니 언제 내려왔느냐고 물었다.

선생님은 속으로 아이고! 그것까지 알고 있으니 모든 것을 다 알아냈구나. 이제 야단났구나! 싫어서 아연 실색하였다. 그 사람은 내색하지 않고 취조하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는

“신사적으로 취조하려면 하고 아니면 유치장에 넣으려면 넣든지 할 일이지 왜 쓸데없이 사람들을 괴롭히냐”라고 호통을 치고는 밖으로 나가 빵과 먹을 거리를 사와서 선생님에게 내놓았다. 그러더니 열쇠를 집어던지면서 선생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에 놀라워하며 말했다.

“세상에! 류금수! 여기에서 류금수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

선생님은 되려 그 사람에게 “선생님이 전에 우리를 열심히 싸우라고 지도하더니 여기 계시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여기에 계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그렇지만 나는 류금수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돌아오라는 소리는 안한다. 나는 여기에서, 류금수는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거다.”

어쨌든 그 사람 덕에 선생님은 감옥에서 비교적 편하게 지내게 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 가서는 옷도 넣어주고 여성에게 필요한 것을 세밀하게 챙겨 넣어주는 등 관심을 보였다. (그 사람은 나중에 선생님의 어떤 난관에도 변하지 않는 끈은 성품에 반해서 청혼까지 하였으나 선생님은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1950년 6.25일 전쟁이 발발하여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이승만정권은 보도연맹가입자들을 일차적으로 학살하고 중범자 무기 사형 사상범들을 다 추려내어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죄수들을 다섯명씩 묶어서 트럭에 태우고 가서 뚝섬 한강에 트럭채로 굴러내렸다. 서로 손이 묶인 그들은 고스란히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인민군이 밀려오자 서대문형무소는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한강도하작전 중 영등포 교도소부터 서울이남의 형무소에 재소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서대문형무소를 열어 좌익활동가 및 일반죄수들을 풀어주었다.

서대문형무소에 갇힌 사람들은 바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못하였다. 형무소까지 포소리가 가까이 들렸지만 그것이 무슨 소린가 하고 궁금해 하며 다들 불안에 떨고 있었다.

선생님은 다만 신발을 보자기에 싸서 구석에 내팽개쳐둔 채 “폭탄이 떨어지면 시퍼런 솜이불이나 뒤집어써야지” 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아침 식사시간이 지났는데도 영 아침밥이 나오지 않아서 굶금하여 창살 밖으로 내다보니까 간수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웬일인가하고 있으려니 바깥으로부터 망치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탱크가 서대문형무소를 밀고 들어와 인민군들이 쇠파이프로 들고 차례차례 감옥문을 부수어 열어주었다.

선생님들과 다른 수감자들은 만세를 부르고 울고 불고 좋아라 난리들인데도 인민군들은 흔들림없이 심각한 얼굴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부서진 감옥문을 열고 나오니 인민군의 점령을 알아챈 잡범들이 선생님들과 같은 좌익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넓적 엎드려 절을 하는 진풍경을 뒤로 하고 서대

문형무소에서 걸어서 지금의 교보빌딩 앞으로 안내되어 왔다. 그곳에는 감옥에서 풀려난 많은 좌익활동가들이 잔디밭에 각자 자기가 활동하던 지역의 팻말이 서있는 대로 일렬로 줄을 지어 서 서있었다. 선생님은 그곳에서 동지들을 찾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충청북도의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전에 다 끌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서대문에서 걸어온 사람들은 다들 얼굴들이 햇볕을 보지 못해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선생님은 혹시나 하고 좌익활동의 선봉에 섰던 외삼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일주일전에 서울에서 청주로 이송되어 회생되었다는 것이었다. 청천벽력파도 같은 소식에 가슴이 무너져내렸다.

그 와중에 사람들은 외삼촌이 얼마나 신념에 찬 사람이었던가를 들려주었다. 청주법원에서 판사가 외삼촌에서 사형을 선고하자 외삼촌을 잉크병을 판사에게 집어던지며 “니까짓 것들이 무엇인데 우리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느냐!”며 기세등등하게 법관들에게 호통을 쳐서 모든 사람들은 감동시켰다고 한다.

선생님은 외삼촌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한 번 면회를 간 적이 있었다. 외삼촌은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두터운 솜바지저고리를 입고 계신 것을 보고 선생님은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 외삼촌은 아주 위험한 중에 있는 선생님이 면회 온 것을 알고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병원(감옥)에 입원했다더니 어떻게 나왔나”며 선생님을 더욱 걱정해주었다.

그리고 외삼촌은 “다른 것은 두고서라도 내가 이렇게 더위죽겠으니 집에 알려서 여름 옷 좀 차입해 달라고 해다오”라고 부탁을 하셨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바깥에서 미처 옷을 들여주지 않으면 겨울에는 여름 홑저고리를 입고 여름에는 솜바지저고리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외갓집은 이미 외삼촌이 좌익활동을 한다해서 무지하거나 반동적인 동네사람들이 몰려와서 방구들을 다 찍어 파놓고 집 안에 똥물을 퍼붓고 하는 통에 그 야만적인 상황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하고 식구들이 할 수없이 붓짐을 싸서 집을 떠나 이리 저리 숨어나다듯 돌아다니니까 차입을 해줄 형편이 못되었다. 외삼촌은 선생님에게 처제의 주소를 가르쳐주면서 옷을 들여달라고 당부를 했다. 그것이 선생님이 본 외삼촌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선생님은 외삼촌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한참동안 목이 메어 이야기를 잊지 못하였다.

“지금도 내가 갈음리(고향)에 가면 얼마나 거기서 비참하게 앓고 우리 외삼촌도 거기서 돌아가고 누가 그 소리만 해도 가슴이 미어터지는 거라!

6월 제사에는 내가 할아버지와 산꼭대기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 가면 그때가 떠올라 기가 막히고 가슴이 찢어져”

8월이 되자 인민군은 서울과 수원 천안 대전에서 낙동강까지 파죽지세로 국군을 내몰아 낙동강전선의 왜관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중 9월 중순에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을 벌였다. 그 바람에 청주에서 좌익활동을 벌이고 있던 사람들은 경찰과 국군과 미군에게 삼중포위를 당하여 거의 다 붙들리고 말았다. 선생님도 그때 또다시 잡혀서 경찰서에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온 터라 경찰서안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선생님은 어수선했던 틈을 타 도망쳐 그곳을 빠져나왔다.

도망을 쳐서 나왔지만 사방이 다 적이라 도저히 숨을 데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어느 집의 변소간 옆에 잣더미가 있는 걸 발견하고는 선생님은 그 옆에 던져놓은 재를 퍼 담은 삼태기를 얼굴에 뒤집어쓰고서 잣더미 속으로 숨었다.

더위와 미세한 재가 온몸을 감싸니 죽을 지경이었다. 숨이 막혀 한 번씩 잣더미 바깥으로 얼굴을 내밀었다가 다시 숨었다. 그런데 운이 없게도 건너집에서 그것을 지켜본 사람이 추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바람에 추격하는 경찰들이 잣더미에 총을 겨누고 나오라고 하니 꼼짝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땀과 재의 범벅이 된 선생님의 모습은 뒤라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 비

참했다. 유치장은 만원이었다. 경찰은 선생님에게 사무실의 긴 의자에서 지새우게 했다. 그리고 12시가 되자 경찰들의 교대시간이 되었다. 선생님은 그 틈을 타 다시 달아나 산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배가 고파 산을 내려가 마을의 아주머니에게서 밥을 얻어먹고는 산을 내려가 청천-청주 인근의 동리-에 있는 여고동창생 집으로 옛날 기억을 더듬어 찾아갔다. 그 동창생과는 그녀의 할머니가 류씨가문으로 시집을 오게 되어 잘 알고 있었다. 선생님은 하루를 그곳에서 묵고는 고모가 사는 대사리라는 곳을 찾아갔고 그 사실을 전해들은 할아버지가 기절초풍을 하고 선생님을 불러들였다. 집으로 돌아가자 딸이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안 아버지는 선생님에게 자수를 하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것이 딸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수를 해도 여차피 죽는 목숨이었던 것을 미리 아셨던 할아버지는 “섰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격이지. 지금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벌떡 뛰시며 아버지를 만류하였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부터 날개 꺾인 새처럼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다락방에 숨어지내게 되었다.

이후 이승만정권의 좌익세력 탄압은 절정에 이르고 선생님은 끈 떨어진 연의 신세가 되어 고통스런 시간 속으로 던져지고 말았다.

위험에 빠진 딸을 살리려는 일념에 찬 아버지는 류금수라는 이름을 숨기고 채○○란 가명을 지어 할아버지의 작은 부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선생님을 피신을 시켰다. 선생님은 과부가 되어 그 동네에 피신해서 살게 되었다. 사람들이 과부라고 하니 8대독자이면서 아이가 없는 소씨 가문에서 중신이 들어왔다. 선생님은 졸지에 과부 신세가 되어 스무네 살의 나이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목숨을 부지하려면 그래야만 했었어”

선생님에게 결혼은 통한으로 남겨졌다. 북에서는 이미 1946. 7. 30 남녀평등권법령을 발표하였으며 그 제1조가 일부다처제폐지 일부일부(一夫一婦)제 실시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은 자신의 선택

이 천형과도 같았다. 그래서 몸소 사회주의의 법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것을 스스로 어겼다는 자책감에서 단 한시도 벗어날 수 없었다. 선생님은 결혼이라는 낯선 세계의 속박에 얽매어 온갖 구박을 다 감내하였다. 그런 선생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큰 부인의 모진 구박으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한 번도 큰 부인을 거스르지 않았다. 아이가 없는 큰 부인의 선생님에 대한 미움은 선생님을 피눈물나는 고통 속에 빠뜨렸으며 그것은 선생님이 일흔에 이르도록 계속되었다.

스물여섯에 낳은 첫 아이는 뇌막염으로 여덟살에 죽었으며 스무여덟에 딸(소수영회원)을 낳은 후 2남1녀를 더 낳았다.

남편의 고향에서 또 서울에서 삶의 곤궁함에 불평하지 않고 인형이며 도라지며 액자장수 호텔 청소부며 갖은 어려움을 능히 다 견디어 냈다. 선생님은 가슴에 품은 신념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렇게 인고의 세월을 지내고 있었는데 딸인 소수영회원이 제주 4.3기행때(오감시통) 권오현회장님에게 엄마이야기를 하게되었다. 그것을 새겨들은 회장님이 어느날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여 선생님을 <양심수를 위한 시와노래의 밤> 행사에 불러내셨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동지들과도 만나고 가슴 속에 잠재워두었던 신념을 일깨워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미 그러한 사람이었던 류금수선생님은 고기가 물만난 듯 적극적으로 통일운동을 하기 시작하셨다. 민자통과 범민련 등에서 고문으로 또 쉬지않는 학습을 통한 농익은 지식인으로 선생님은 욕심부리지 않고 사람들의 울타리가 되어 오로지 통일조국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셨다.

올해 팔순에 이른 선생님은 무엇보다도 편견없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통일일꾼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아주 대견해 하시며 헌신적으로 무엇으로든 그들을 도우려 하신다. 또 철마다 보신탕이며 먹거리를 손수 장만하여 먹이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이 한 조

직원으로서 끈으로 단단히 결합되도록 충고를 아끼지 않았던 모습에서 선생님의 변하지 않는 신념을 읽을 수 있다.

지난 2004년 21살의 나이에 평양을 다녀와서 75살의 나이에 다시 평양의 땅에 발을 내디디던 순간에는 자신이 살아서 평양에 왔다는 기쁨보다는 복이 끊이지 않는 미래의 압박에서 온 인민이 위대한 지도자를 앞장세우고 단결하여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더욱 강고히 하고 있음에 감동하여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하신다.

또한 선생님은 지난 해(2007.10.4) 노무현대통령이 삼팔선을 넘는 걸 TV로 보는데 마구 눈물이 흘러나왔다고 하신다.

“아. 정말 시대가 좋아졌다! 내가 저 삼팔선을 넘었

을 때는 그렇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그야말로 사선을 넘는 거였지.”

어디 그것이 한 시절의 열정에 그치겠는가

선생님은 지금 통일운동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꽃다운 청춘이요 왕성한 현역일꾼이시다.

선생님의 전 생애는 오직 우리민족끼리 대단결하여 자주통일을 이루는 것에 바쳐졌을 뿐 아니라 그 용솟음치는 기운으로 우리들마저 헌신적으로 껴안아서 그 길로 이끄는 것... 그러므로 선생님은 진정한 사회주의자이신 것이다.

*선생님께서 거듭 가슴 무너져내리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음에도 여기에 다 담아내지도 표현해내지도 못한 것은 애초에 나의 글솜씨도 그 러려하니와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한몫했다는 변명으로 선생님께 송구한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모시는 글

9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121회)

■일 시 : 2008년 9월 9일 (화) 오후 6시

■장 소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광화문 우체국 6층)

■작 품 명 : 내 고향의 바다(평양연극영화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 2005년제작, 87분 상영)

■줄 거 리 : 철석은 제대하면 룡포수산협동조합 양식반의 반장을 맡아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는 외화벌이에만 급급해 마구잡이로 조개를 캐내어 파는것이 분노하고 룡포 앞 바다를 양식장으로 만들 계획을 세운다.

조합의 책임기사 옥화는 외화벌이 지사의 하청을 받아 조개를 공급하여 조합의 이익을 내는 사업을 해왔다. 그녀는 철석에게 그의 아버지이자 순직한 전 과리위원장도 양식업을 추진하다가 빚만 내고 결국 실패하지 않았느냐며, 양식업의 장래성이 없다고 설득한다. 그러나 철석은 뜻을 굽히지 않고, 양식업의 성패가 해일 피해를 막느냐, 아니냐에 달렸음을 알게 된다. 철석은 양식연구소 연구사 일무(옥화의 남편)와 함께 이 연구에 매달리고 청년동맹원들도 힘껏 돕는다. 한편 옥화의 허락으로 외화벌이 지사의 발동선이 양식장에서 기르는 새끼 조개를 마구 캐내어 외국으로 싣고 가는데 철석이 막아서자들의 대립은 극단으로 치달는다. 철석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의 자원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를 비난하고, 수산청에 가서 이런 현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수산청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같이 해결해보자고 철석을 독려한다.

일무는 해일 대비책을 찾아내어 양식업은 활기를 찾게 되며, 옥화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철석은 그런 그녀를 받아들여 화해를 한다.

■문 의 : 한찬욱 (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향의 품과 같은 “만남의 집” 뜨락에서

조순덕 | 민가협전상임의장

서울의 한 언저리,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귀한 보금자리가 있다.

낙성대 만남의 집!

내가 처음 낙성대를 방문했을 때는 96년 가을이었다.

안 살림은 정순덕(마지막 여성 빨치산)선생님께서 맡아 하시고 1층 2층 나누어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이 도란도란 평화스럽게 생활하고 계셨다. 자상하고 인자하고 따뜻한 분들 같은 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사무적이면서도 경직된 모습도 느끼게 된다. 남파? 비전향? 3.4십년을 감옥생활...그럼 간첩!!!

이유야 어찌되었건 그 긴 세월을 어떻게 0.75평 좁은 공간에서 생활했을까?

생활이 아니라 간혀 있었던 것이다. 그때 생각에는 가슴이 터-억 막혔다. “어찌 세상에...”

선생님들의 ‘삶’은 참으로 생소했다. 그리고 무척이나 궁금하기도 했다.

그무렵 민가협 ‘목요집회’에 먼저 출소하신 선생님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민가협어머니들과 아직도 감옥에 계신 비전향장기수 “신인영 우용각을 석방하라!” “조상록 강용주를 석방하라”라고 외치며 석방운동도 함께 했었다.

그러는 중에 김대중정부 들어서서 단계적으로 신광수 손성모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비전향장기수 선생님들은 모두 석방되었다.

낙성대 만남의 집, 갈현동 만남의 집, 과천 한백의 집, 우리탕제원, 제기동 민중탕제원, 광주 통일의 집, 대구 대전 전주 등에서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은 각자 길게 짧게 등지를 틀었다.

우리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훨씬 많으신 선생님들은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부터 궁금증은 풀리기 시작했다

일본의 패망으로 갑자기 찾아온 8.15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세에 의해 한반도의 3.8선은 굳게 막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엄청난 역사우리비극에서 고통받고 계신 선생님들에게도 ‘비전향장기수 문제해결’이란 희망의 끈이 보였던 것이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그해 9월, 63분의 비전향장기수선생님들은 아직은 남과 북 서로가 자유로운 왕래를 할 수 없는 마음무거움과 가슴아픔을 뒤로 하고 신념의 고향 공화국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리고 텅빈 낙성대는 얼마간 적막강산이었다.

다시금 북으로 가신 선생님들의 그리움이 묻어난다.

그리고 문상봉 김영식선생님께서 낙성대 만남의 집에 오신 한참 후에 권오현회장님께서



“낙성대에 전주에서 두 분 선생님께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또 한참이 지난 후에 (해가 바뀌어서)낙성대에 들었다.

문상봉선생님은 처음엔 마음을 열지 않으셔서 많이 서먹했다. 위낙 내성적이시라 웃음도 말씀도 없으셨고 지금도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시고 표현이 없으시다. 그래서 무척 조심스럽고 어렵다. 그렇지만 그 속내는 포근하고 따뜻하고 자상하신 분이시다. 2004년에는 금강산 정상까지 올라가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지금은 바깥출입이 어려울 만큼 건강이 좋지 못해 항상 걱정이다.

김영식선생님은 장병락(2000년 북으로 가신)선생님께서 가끔 김선생님에 대해 말씀이 있으셔서 근방 친근감이 들었다.

김선생님은 위낙 성격이 낙천적이라 좋으면 금방 좋고 싫으면 금방 싫은 내색을 표현으로 내보이신다. 그렇지만 뒤끝이 없으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낙성대 먹거리(식사 등) 김선생님께서 거의 조달하신다. 사오시고 얻어오시고 캐오시고 따오시고 잡아오시고(이해할랑가?) 먹이는 것 좋아하시고 주는 것 좋아하시는, 정이 많으신 분이다.

후원회에서 매월 주신 선생님들 생활지원금을 김선생님은 가게부까지 꼬박꼬박 쓰시면서 알뜰하게 절약하시며 제기동의 경동시장까지 가서서 좋은 과일야채를 한 톨이라도 싸게 사서 지고 돌려메고 오신다.

그리고 먼저 가신 정순택선생님도 그렇다. 감옥에서 고문후유증으로 정선생님은 말씀을 전혀 알아들으실 수는 없으셨지만 목청만큼은 어느 청년 못지않게 쩌렁쩌렁하셨다.

그런 이유로 대화는 언제나 필담으로 해야만 했다. 선생님 방에는 커피 홍차 쌍화차 유자차 현미차 매실차 울무차...등등 더 많은 차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방에 들어서면 “어느 것 마시겠냐?”며 주문을 받으신다. “커피 한스푼 설탕 한 스푼 프림한 스푼이면 적당해” 하시며 손수 타주신다. 차마신 후에는 아몬드 땅콩 검정콩(볶음)해바라기 씨 등을 큰 접시에 골고루 내놓으시며 “이것들이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것들이여” 하시며 그리고 필담이 시작된다. 그 중 아직도 내 머리 가슴에 남아있는 몇 마디!

“북에 아들 사형제가 있는데 다 잘 자랐대... 큰아들(정태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선전공학부 부학부장이다.. 애들 엄마는 죽었대.... 그러나 애들은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척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애’ 들을 만나 뵙고 여생을 보냈더라면 더없이 행복하셨을 텐데 ...안타깝다.

박희성선생님은 최근에 만남의 집 가족으로 입적(?)하셨다.

박선생님은 건강이 많이 좋지못한 문상봉선생님을 지성으로 돌보시며 식사준비며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돌보시고 챙기신다

그리고 그 깔끔하신 성격으로 오시자마자 뜰, 1층2층 구석구석 청소까지 ... 낙성대의 분위기는 화-악 달라졌다. 그러면서도 김선생님과 박선생님은 민가협 ‘목요집회’며 모든 집회와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계신다. 그 사이 사이 책읽기도 빼놓지 않으신다. 이렇게 성격이 각기 다르고 정반대인 세 분 선생님들이 알콩달콩 남은 ‘삶’을 살아내고 계신다. 박선생님과 김선생님은 문상봉선생님을 친형처럼 끔찍히 모시는 걸 보면서 가슴 찡함을 느꼈다. 비전향 장기수선생님들 간의 깊은 동지애가 절로 느껴진다.

사랑하는 모든 장기수선생님(통일광장)들 통일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2차송환대상 해결도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그런 선생님을 꼼꼼히 살뜰하게 돌봐드리는 양심수 후원회가 있다. 권오현 회장님과 임미영국장 그 외 많은 회원들이 정성과 사랑으로....

특히 임미영 사무국장은 언제 봐도 조그만 모습으로 사무실 일이며 선생님들 식사며 건강 챙기랴 소식지 만드랴 교도소면회 집회 회의 등 ..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이다. 내가 무엇이랴도 도우고 싶지만 기껏 자주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웃어주고 이야기상대를 해주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어쩌다우리 민가협어머니들 방문할 때면 정말 반갑게 맞아주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오고가는 정에서 사랑이 싹튼다는 말을 실감할수 있다.

또 특별하게 서미라.김호현 두 부부회원은 명절이 되면 미리 나물 전 고기며 곱국이며 선생님들 드시라고 알뜰이도 챙겨놓고 간다. 또 멀리 용인에서 김혜순 이현근도 명절 후에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총출동해 선생님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린다. 이 밖에도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많은 회원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우정과 애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저 옆에서 마냥 부럽기만 하다.

그리고 낙성대에는 보물 창고가 있다. 조그만 뜰이다. 이른 봄이면 앵두꽃이 만발하고 곧이어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빨갭게 익어간다. 먹음직스럽게.

상추 배추 무 쭈갓 아욱 고추 오이 호박 부추 갯잎 방앗잎 미나리 곤드레나물 취나물 곱취며워 민들레 냉이 질경이 (더 많다.) 계절에 따라 무궁해 야채를 맘껏 먹는 즐거움을 누린다. 텃밭아롱 고구마며(쌀나무)도 계절에 따라 익고 커준다.

단풍 목련 작약 개나리 수국 옥자매 분꽃 나팔꽃 파리 등도 피어야 될 계절에 맞게 어김없이 탐스럽게 또는 앙증맞게 차례로 꽃을 피운다. 선인장꽃도 우아하게 한뼘한다.

가을이면 모과 호두 감 대추가 각기 다른 색으로 차례로 익어간다. 그 중 대추나무는 생명이 다 했는지 시름시름 제 구실을 못한다. 안타깝다. 다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만남의 집 마당에 과일 야채 꽃만 자라고 피고 맺는 것이 아니다.

귀한 약초도 있다. 피마자 오갈피 둥굴레 마 -나머지는 내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등이 소중하게 자라고 있다. 그 외 많은 잡풀도 김영식선생님을 애지중지 기르시며 무엇하나 버리지 않고 다 먹거리로 삼으신다. 내가 알기에는 틀림없이 못먹는 잡풀인데도 선생님이 드시는 것이 마음에 걸려 집으로 돌아와서 황대권(학원간첩단사건으로 13년2개월 옥고르 치름)선생의 감옥에서 쓰신 <야생초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야채는 물론 들풀 잡풀 모두 먹을 수 있단다.... 참 신기하다. 김선생님 말씀이 맞았던 것이다.

만남의 집 뜰에 가끔은 김선생님께서 깊은 산속에서 과수원에서 밭에서 논에서 보이는 대로 캐어다 심어서 가꾸어진 것들이다.

유난히도 더운 올 여름에 그 뜰에 매미가 뽐뽐뽐뽐 뽐다고 아우성이다. 성질급한 산까치 한 쌍과 성질 느긋한 비둘기 한 쌍도 가끔 뜰에 날아온다. 산까치는 조그만 인기척에도 후다닥-날아가지만 비둘기는 확 소리를 내도 한번 쳐다만 보고 다시 모이를 줍는다.

누가 돌봐주지 않는 주인없는 들고양이도 어슬렁 어슬렁 마당에 기웃거린다.

만남의 집에는 살펴볼 것이 무궁무진하다. 언젠가 돌보기 들고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관찰해 볼 참이다. 서울에서 드물게 찾아볼 수 없는 풍경을 모두 함께 느껴봤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서 두서없이 썼는데... 너무 많이 관람(?)오실까봐 아무래도 행복한 걱정도 된다. ♥♥♥♥♥

이명박정부는 국민을 탄압하는 악행을 멈추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임미영 | 후원회사무국장

정부는 12일 정치인범죄자를 비롯해 생계형 민생 사범 34만 1864명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복권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에는 비리정치인 12명을 비롯해 비리고위공직자, 비리언론재벌총수 등 악행을 밥먹듯 저지른 경제사범을 특별사면하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크게 단죄되어야 할 비리부패권력형 범죄자들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특히 비리 경제인들이 저지른 배임죄 횡령죄 등은 다른 여타의 생계형 범죄처럼 우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계획된 조직적 범죄이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정권을 등에 업고서 행해지는, 그 규모나 피해액수가 천문학적이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회복 불가능한 것으로서 확고한 법집행에서 한발자욱도 물러나서는 안 되는 죄인 것이다. 노동력을 착취하여 수중에 넣은 <검은 돈>의 소유는 그 자체가 범죄요, 권력과 축적된 자본은 그 범죄의 거대한 배후로 작용하여 인면수심의 범죄를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죄는 수억이니 수조니 하는 일반서민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수치상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하는 엄청난 영향력으로 보더라도 법적 최고형량을 구형받아도 시원치 않을 일이다.

이번 이명박정권이 내놓은 비리재벌 총수들에 대한 특별사면의 변의 궁색함은 가관이다. 건국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며 고유가와 내수침체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하는, 정말 단 한 점의 논리도, 설득력도 없는 저질적이고도 역겨운 변이다.

바로 어제 저녁 이명박정부는 공영방송KBS의 정연주사장을 해임 하루 만에 죄를 구성하는 아무런 증거조차 없는데도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 사태는 언론탄압의 전형으로서 이것은 이명박대통령이 얼마나 사회발전에 치명적이고 부도덕한 인물인가를 폭로되는 것에 미리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의지의 실력행사이다. 모든 독재정권의 시작은 언론장악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베이징 올림픽에 쏠려있고 또 연일 더위가 기승을 부려 국민들이 폭염 속에 얼마간 지쳐있을 무렵을 틈타 전방위 공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그의 더러운 입으로는 국민소통이니 화합이니 경제살리기는 서민을 위한다느니 갖은 수사를 떠벌리면서 뒤로는 아니 보란 듯이 그 자신은 한미최고기협상이라는 사대굴욕적 외교에 앞장서서 자주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국민들의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고 있다. 그리고 수배조치가 내려진 진보진영의 인사를 후원회행사 진행 중에 연행해갔다. 한손으로는 권력비리형경제사범을 사면하고 한손으로는 무리수를 두며 진보진영의 활동가들은 마구잡이로 연행 구속시키고 있다.

이런 일련의 이명박정권의 국민에 대한 탄압 속에 이루어진 이번 특별사면의 내용은 그가 저지른 모든 악행의 한 장을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그 다음 악행준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 나라의 양심수의 수가 그 나라의 문명화 선진화 진보화의 척도라고 본다면 이렇게 많은 양심수가 흘러넘쳐나는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반민주 반인권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교묘한 속임수로 이미 범죄자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지석 달이 지나지도 않아 그 지지율 10%로 떨어졌지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통제로 삼킨 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독재야욕을 드러내고 있으며 지지율이 단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한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악랄하게 권력의 구둑발로 국민을 짓밟으려 할 것이다.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김경환법무부장관은 뻔뻔스럽게도 ‘사회 각계각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사면으로 화합과 동반의 대를 지향하고자 한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대통령권한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권은 대통령의 자격으로서의 사면권행사이지 개인의 정치적 취향이나 독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상식을 외면하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자신들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는 억지논리로 특별사면의 범위를 선택했다.

국민을 이롭게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한다면 이번 특별사면은 국민의 뜻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본가들과 부도덕하고 부패한 권력가들이 그들이 안방에서 잔치를 열게 해 주었다. 그러나 노동관련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 양심수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동의 선을 위해 양심적활동을 하다가 올바른 법 적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불법적인 법의 적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들이고, 비리 경제인들은 평균 3개월도 안되는 수감생활 중에 진실이니 희생이니 봉사니 하고 엄살과 거짓 참회로 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동안에도 구속양심수들의 가족들은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사회적편견과 생활의 곤궁함과 가족해체라는 정신적 고통이라는 다중의 창살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다. 그러나 선진적인 대중들은 머지않아 저항의 호된 화살을 쏘게 될 것이고 이명박정권과 그 하수인들은 자신의 심장을 너른 과녁으로 내놓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감옥에 갇힌 구속양심수들은 대통령에게 은전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역할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잘못된 정책시행에 대한 반성과 자기각성을 촉구하는 기회와 대통령의 국정방향에 대해 도덕성을 부여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광복절특별사면에서 얻은 결론은 이제 이명박대통령과 집권한나라당이 떨칠 것은 악명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은전을 베푼 경제인들은 다시 배부른 돼지로 돌아가 온갖 불의함에 몰두하게 될 것이며 비리는 비리를 낳고 부도덕은 부도덕을 낳는 악순환을 일삼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이명박정권은 옥석을 잘 가려 보배 중에 보배인 사회공동선을 위해 구속된 양심수들은 전원 석방하고 수배조치를 해제하고 즉각 사면 복권할 것을 주장한다.

2008년 8월 13일

남도 빨치산을 읽고서

김재선 | 후원회원

소설 남도 빨치산 전6권은 우선 방대한 분량이다. 또한 소설의 형식이지만 남도 빨치산의 살아있는 역사서이자 일지이며 작가의 체험담 또는 회고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소설 태백산맥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쉬쉬하던 역사적 사실들이 소설을 빌려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빨치산들이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고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싸우다 죽어갔는지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태백산맥은 전쟁 전 특정지역의 구 빨치산 이야기이고 양비, 양시로 구색 맞추기를 한 흔적이 보이며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주지는 않았다.

남도 빨치산은 한국전쟁 때의 이야기이며 전라남도 전체를 아우르고 내용 또한 체험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자료 섭렵을 위해 수많은 현지답사와 생존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취재를 했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고 훨씬 구체적이다.

패잔의 역사도 역사다. 더구나 위대한 패잔이 역사라고 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데 아직까지는 적지 않은 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하늘아래 상존하고 있지만 더 늦어지면 구슬이 변질될 수도 있다. 먼저 간 동지들에 대한 부채감과 같이 재산 생활을 한 산중인으로서 자칫 묻혀버리기 쉬운 산 역사를 써서 남기지 않을 수 없었기에 이 시대 사람들 앞에 내놓은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었고 소설 구성상 허구에 진실의 다리를 걸쳤다고 했다. 작가는 주인공이 없다고 하지만 재산 빨치산 전체 성원과 후선에 남아서 온갖 고초를 다 겪은 민중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모

두 다 주인공인 것이다.

이 소설은 아직까지 빨치산에 대한 그릇되고 뒤틀린 인식을 바로잡고 극한상황에 몰렸으면서도 당당히 투쟁하는 빨치산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9. 28 후퇴 시기부터 김선우 도당위원장이 전사할 때까지의 약 4년 동안 재산 빨치산들의 치열한 투쟁의 역사가 소설의 무대이다. 강차영은 후퇴 시 춘천으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가던 중 선은 끊기고 생애에 가장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다. 결국 복행을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스스로 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무등산, 불갑산, 추월산, 모후산, 유치산, 조계산, 백아산, 백운산, 월출산, 지리산 등 남도의 명산이란 명산은 거의 다 등장한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들도 있지만 작가의 구체적인 설명에 마치 그 산속에서 오랫동안 동고동락 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빨치산들은 등에 번쩍 서에 번쩍 하루에도 몇 번씩 토벌대와 부딪히고 생사를 넘나들며 고산준령을 초인적인 힘으로 행군을 한다.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내가 좋아해서 하는 산행이야 견고 싶으면 견고, 견다가 다리 아프고 숨차면 쉬면되고, 또 속이 출출하면 배낭에서 꺼내 먹으면 된다. 그래도 산을 조금이라도 타본 사람들은 그것도 수월치 않고 무척 힘이 든다는 것을 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산속에 당학교도 짓고 숙소에는 방구들을 놓고 지냈으며 기념일에는 조출한 기념상도 차려놓고 노래자랑 등 다양한 오락회를 즐기는 낙천적인 여유로움도 보인다.

출신성분들이 다양한 빨치산들은 상호인간관계도 동지에게는 봄바람같이 따뜻하고 자신에게는 추상과 같은 엄격한 절제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28세 정도의

나이드 빨치산으로는 많은 편이라니까 지극히 젊은 청년들이 갖은 악조건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습이 눈물겹다. 동지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탄창쇠를 뽑아서 돌에 갈아 서늘을 내고 끓인 소금물에 담가서 소독하고 총상을 입어서 상처부위가 썩어 들어가는 동지의 손목을 잘랐다.’ 마취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정규전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인 네이팜탄과 세균전으로 많지도 않은 빨치산들을 괴멸시킨다고 하늘에서 불을 쏘아 쫓는다.

군경침공대는 사찰건물을 소각하고 불적을 훼손해 놓고는 빨치산 소행으로 덤터기를 씌우고 입산자 가족은 물론 유격대의 생활근거지를 없애고 보급원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초토전을 벌인다. 집단학살, 능욕, 능욕 후 살해, 생매장등 인간으로서는 차마 상상하기도 힘든 만행을 저질렀으며 작가는 이 추악한 역사적 사실들을 다양하게 고발한다.

53년 정전협정으로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던 주력무장력이 후방으로 돌아서 재산빨치산들에게 화력이 집중됐고 식량 및 각종 보급문제가 뒷받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인 그런 무장력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했다. 지리산 품이 아무리 넓고 골짜기의 주름이 깊다 해도 그 무성하던 수림도 때가 되어 잎이 떨어지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다.

토끼 한 마리가 돌아다녀도 사람 눈에 다 쫓긴다. 소대 한 엄동설한을 산속에 초긴장 상태로 대치하면서 견딘다는 것은 차라리 기적에 가깝다. 하지만 그런 악조건에서도 불굴의 신념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처절히 투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다음의 구절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 속에 있다.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조국애이며 주체이다. 인간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혁명을 할 수 없다. 동지를 사랑할 줄 모르면 동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일이란 사람들이 하는 것이며 혁명은 대중이 하는 것이다.’

일반 상업소설과는 달리 내용이 딱딱하고 습격, 매

복, 수색 등 거의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주를 이루다보니 좀 지루할 수도 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등장인물과 지명 등 사건의 방대한 양으로 섣뜻 어느 사건하나 제대로 기억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독자들은 시공을 넘어서 소설속의 강차영도 되어보고 서민옥, 김길승이 되어서 남도의 산하를 축지법을 써서 누비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독서를 하면 지루함 없이 아주 가슴에 와 닿을 것이다. 관심을 가지고 읽으면 알게 되고 알면 또한 새로운 것이 보이고 그때 보이는 것은 그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각설하고 작가는 이미 여러 권의 시집에서도 눈에 띄게 우리말을 많이 애용했다. 역시 남도 빨치산도 사라져가는 우리말의 보고이다. 이 소설에도 소외되어왔던 우리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신선한 선물을 했다고 생각한다.

요즘 영어몰입교육이다 뭐다 해괴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외래어에 밀려서 우리말의 설자리가 점점 없어져가는 이때에 소설속의 우리말을 캐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소설 남도 빨치산에서 찾아낸 아름다운 우리말을 일부분이지만 소개해본다.

1권 40쪽 화장걸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갔다.

(뚜벅뚜벅 걷는 걸음. 건틀거리는 걸음)

1-42 셋 다 어금지금한 가운데 그래도

(서로 엇비슷하여 큰 차이가 없다.)

1-95 보유하고 있는 무장들은 끝밋하다.

(훤히하게 생겼다.)

1-231 체면 불구하고 초췌습으로 입학했다.

(일하는데 맨 처음)

1-284 산꼬대가 이는 만수동 밤 (밤중에 산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추워짐. 그 현상)

2-25 이렇게 곱비임비 끌려나온 사람이

(일이나 물건이 거둬 포개진 모양)

2-81 재빨리 고삿을 빠져나왔다.
(마을안의 좁은 골목길)

2-89 우선 갱신 할 수가 없다.
(몸을 움직이는 일)

2-199 한자일색으로 매대기를 쳐 버렸을까
(진흙 똥 따위를 손에 묻혀 함부로 아무데나
뒤바르는 짓)

3-27 그렇게 흥감스럽게 구는 까닭은
(넉덕스러운 말로 실지보다 늘려 말함)

3-69 그녀 또한 송글 맞다.
(성질이 너그럽고 원만한 모양)

3-193 실탄을 마디게 썬야한다.
(쓰기에 오래 가다)

3-276 놀랄 만큼 깔죽없이 번져서 진초록 천지를 (조
금도 축나거나 버릴 것이 없다.)

4-74 에멜무지로 덤벼들 일 같지는 않다.
(말이나 짓을 헛일 겉 시험 삼아)

4-152 그것들이 일매지게 자라서
(죄다 가지런하다.)

4-287 그렇다고 허랑히 떠돌게 해서는 (말이나 행동
이 거짓이 많고 확실하지 못함)

5-75 강차영은 그 자넉스러운 꼴에 오금을 꺾고 신을
한다. (악자의 참혹한 모양이 불쌍해 차마보기
어렵다.)

5-157 뒤틀린가 잡살뱅이가 널려있을 뿐
(온갖 자잘한 것이 뒤섞인 허름한 물건)

5-158 씨록초일 망정 한 대씩 꼬시르고는
(칼로 썬 담배)

5-73 그는 한걸차고 기민한 군사일꾼으로 (품채가 남
다르고 의기가堂堂하여 보인다.)

5-190 부라퀴 같은 수색대가 (제게 이로운 일이면 기
를 쓰고 답비는 사람)

5-265 그때가 되면 하마 생강나무 꽃들이
(이미, 벌써 [옛말 : ?때])

6-87 재바르고 영특해서 (재치있고 빠르다)

6-201 총성은 바투 틀리고 (썩 가깝게)

6-295 물에 갈아 서슬을 냈다. (칼이나 다른 물건의
끝이 날카로운 것. [예 : 서슬이 퍼렇다.])

전남 유격 투쟁사 - 정관호 (출판에 즈음하여)
좀 더 깊고 보태서 알찬 글로 내놓고 싶었다.
(1.해진 곳에 탄 조각을 대어 때우거나 그대로 꺾매
다. 2.글이나 책에서 내용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다.)

소설 속에는 처음 들어보는 우리말이 많고 알고는
있지만 지금은 잘 쓰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말이 우리
에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감도 있다. 무릇 글이란 군더
더기 없이 쉽게 써서 누구라도 이해하기 쉬어야 한다
고 들었는데 대개 글줄깨나 쓴다는 사람들이 쉬운 우
리말은 천시하고 유식해 보이려고 어려운 말만 골라
쓰는 풍조가 이런 기현상을 초래했는데 크게 반성할
일이다.

이처럼 소중한 책을 내주신 정관호 선생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
가릴 것 없이 한번 읽어야 하고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김명호님의 편지

임미영님에게

어제 (7.29일 화) 8월호 <말>지 잘 받았습니다

‘세입자 법조항들과 권리찾다’ ‘박제된 민주주의 먼지를 털고거리로 나오다’ ‘를 일고 차장님 면회시 제가 얘기했던 것들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양심수후원회 구노회 등의 시민단체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국민의 호응입니다. 사이비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공권력과 기득권층은 ‘법과 원칙’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 ‘법과 원칙’을 밥먹듯이 깔고 뭉개는 자들이 말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인데도 그동안 먹혀들어간 수법입니다. 그 이유는 그 어처구니없는 저들의 전략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잘못이 크기 때문이죠.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판사들입니다. 우리나라는 뒤집어진 세상인지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고 힘없는 서민이 가장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답은 나옵니다. 저들에게 대응하는 전략은 바로 ‘법과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기사에서도 시사한 바와 같이 법대로 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불필요한 실행행사로 인해 제 3자인 국민들로부터 폭도로 매도되지 않고 (단 우리가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헌법제 1조 제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이 보장한 ‘국민저항권’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실행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은 프랑스혁명에 기인했다고 하며 석궁시위, 4.19의거 등이 그 예들입니다.

구노회 민노총 양심수후원회 등이 범국민적으로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모든 구속노동자 양심수들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형기의 삼분의 일이 넘는 모든 수용자들에 대한 가석방심사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석방심사에서 탈락했을 경우는 나중에 대책마련해야겠지만 일단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단체와 공동투쟁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7월 30일 김명호

* 추신 - ① 석궁사건에 관련하여 대법원 앞 시위 등 관심과 도움에 늦게나마 감사드립니다

② 후원회 소식지를 보니 정신없을 정도로 많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③ 동봉한 <인권침해행위>를 인터넷 등에 올려주시고 인권위에 진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후원회 등 단체 이름으로)

유죄선고 촉구목적의 판사들 집단결의

석궁사건(서울동부지법 2007.노1060)선고를 앞두고 법원을 판사들 집단결의 목적으로 2008년 3월 7일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석궁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고 엄단하겠다고 재천명함으로써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신체자유권을(헌법제12조) 침해하였습니다.

- (1) 대법원을 석궁시위 발생 4일만에 (2007.1.19) 전국법원장의 회의를 열어 석궁시위를 ‘사법부에 대한 테러’라고 숙단하며 엄단할 것을 결의함으로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원칙’을 묵살한 것도 모자랐는지
- (2) (자칭피해자) 박홍우 못가지 혈흔이 박홍우혈액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에 의한 증거조작임을 인지한 이회기 판사가 사표제출하고 뛰쳐나가자 무법자 신태길을 판사로 지정하고 2008. 3. 7일 전국수석부장판사회에서 단체행동할 것을 결의함으로써 신태길로 하여금 못가지 혈흔이 박홍우혈액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첨부자료1)진정인을 불법감금하는 위법선고하도록(첨부자료2, 22쪽 44쪽.) 압력행사하였습니다.

(3)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진상도 밝혀지기 전에 중단하겠다고 법원이 공언한 게 있었습니까?

(200.19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석공사건에 대한 2008. 3.7일 전국수석부장판사회에서의 집단결의행위는 「헌법」 제11조 (법앞에서의 평등)을 침해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

1. 혈행검증신청이유서

2. '이것이 재판인가? 폭력이지!' 2008.5.30일 토론회

여우성 님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양심수후원회 회장님 회원님 민가협 어머님들 모두 몸건강하시겠죠

저는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지투쟁특별위원회 전/해/투 조직국장여우성입니다

따뜻한 후원금과 책 서신을 보내주신 감사의 예의에도 제때 글을 올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상했던 대로노동자, 서민,민중들을 짓밟고 고열을 짜내 친재벌 자본가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출범한 미친 이명박정권과 하수인들입니다.

전/해/투 일상사업으로 이명박정권 출범저지투쟁, 비정규직투쟁, 코스콤, 이랜드, 홈에버, 기륭, 재능, 대자 등 장기투쟁 사업장 공동투쟁사업을 진행하던 중 서초사에서 집회관련 확인조사를 게 있다고 출두요구에 서초사에 도착하자 서전계획 표적 긴급 구속되었습니다.

경찰 검찰판사 집회를 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처음구치소 온 지도 70일이 넘고 있습니다.

해고된 사업장에서 8년 넘게 복지투쟁을 하면서 대법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사측의 농간 항수에 취해 대법확정판결받은 해고자를 원직복직시켜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2번째 구속시킨 것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국가보안법 석공사건 등 양심수동지들을 만나고 건강과 안부를 묻고 운동시간 면회시간에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독거방에 가지 못하고 일반사동에 있습니다.

독거방에 관구제장과 5차례 이상 요청은 하였으나 잘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사동에 모기장설치문제, 수감자 운동시간문제, 면회시간문제, 부식문제 등 아픈 재소자 투약문제들은 논의하였고 병든소 미친소를 미국에 굴욕적으로 수입해 무릎을 꿇고 이명박정권에 상대한 촛불집회에 대하여 많은 설득과 이해를 시켰고 구치소내에서는 이명박정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공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장미와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의 양심수동지들 한 분 한 분 꼼꼼히 챙기시는 모습은 보면 새로운 감동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후원금 책 서신 받을 때마다 지켜보는 수감자들도 힘을 보태주는 메시지로 전합니다. 전/해/투는 해고된 현장으로 돌아가 하루를 일하더라도 원직복직 당당한 노동자의 자존심과 권리를 찾는 데 해고자정신이 있습니다.

7월 24일 선고일입니다.

더 큰 싸움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은 꼭 만들어가겠습니다. 무더위에 어머님 회장님 회원님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진걸님의 편지

민기협양심수후원회 회원님들께

촛불시민들과 양심수후원회 회원님들과 끝까지 촛불항쟁에 나서야 하는데 덜컥 구속되어버려 너무나 죄송한 죄인 안진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일, 이명박정부에 저항하는 일, 시민사회운동을 더 활성화시키는 일에 매진하고자 몇 년 진행했던 양심수후원회소식지-장기수선생님인터뷰코너도 아쉽게 사양했던 제가 일은 커녕 꿈쩍없이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죄송한 마음 이 안에서 간절하고 소박하게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틈만 나면 편지를 써서 세상의, 감옥밖의 촛불들과 연대함으로서 제 죄송함을 갚고 있습니다. 평범한 민중 시민들이 주도하는 참된 참여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강력한 무기가 된 촛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중 서민들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지키는 그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고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승리와 큰 변화를 일궈낸 촛불 앞으로 더 더 많은 승리와 변화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처음엔 많이 답답하고 갑갑해서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국과 민중 민주주의를 위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 수십 년씩 간혀있었던 분들 떠올리니 제 고생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고 앞으로 이명박정부와 싸워야 할 일 생각하니 힘이 불끈 불끈 솟았습니다. 지금남-북관계까지 파탄내고 있는 이 정권을 생각하니 분노가 더 솟고 그것이 더 큰 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산가족들의 피눈물은 어떻하라고... 이명박정권은 기본적인 인정도 없는 정권입니다. 특권층 그것도 1%에 최고부자들만을 위해 마구잡이로 정책을 쏟아내는 것을 보니 강렬한 투쟁욕구로 힘이 더 더 솟아나더라고요 ㅅㅅ

앞으로도 안에서 나가게 되면 밖에서 더욱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헐 자로서 양심수후원회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양심수후원회 회원님들께서도 모두 잘 지내시길 기원드릴게요 비장한 멘트 하나 날리면서 이만 글을 올립니다. 이 안에서는 가끔 비장한 멘트가 힘이 되더라고요. 이해해주세요.

"내 작은 이 한몸 역사에 바쳐 싸우리라! 사랑하리!"

2008년 7월 26일 토강제구금 32일째 서울구치소 안진걸이 드립니다

※ 8월 10일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윤기진님의 편지

권오현회장님과 양심수후원회가족동지들에게 늦게서야 인사드립니다.

매달 어김없이 보내주시는 선물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장마로 고생하실 전국의 양심수동지들에게도 안부인사를 보냅니다.

십수년 만에 세끼 식사를 챙기고 운동까지 규칙적으로 하다보니 몸 나이는 이십대로 돌아간 듯 합니다. 책도 열심히 보려고는 하는데 아직 재판중이고 거의 매일 접견에.. 써야 할 글도 밀리고 있는 바람에 육식만 큼은 진도가 나가지 않네요 90년대 징역살던 기분으로 지내다가 5월에 <조사방>에 한 번 갇히고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정훈동지의 편지와 책자를 보면서 도움과 자극은 많이 받았는데 아직은 소내투쟁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못합니다.

최근 이곳에 촛불동지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오다가다 뵈던 얼굴들이 (반갑지 않은 일이지만) 무척 반갑습니다. 이명박의 불안한 역주행이 거침이 없습니다. 부도덕하고 무식, 오만한 정권이 최근에는 아비함까지 더해져서 보기에도 역겹습니다. 이런 저질 정권을 상대로 하는 국민의 분노 민중의 촛불이 꺼질래야 꺼질

수가 없겠지요. 재판준비 외에도 반미, 반이명박투쟁전선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정기적으로 글을 내 보내기는 하는데 스스로도 성에 차지는 않습니다. 더 노력해야죠.

양심수동지 ! 한계가 많은 공간이지만 주동적인 투쟁과 생활의 조직으로 하루하루 의미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특히 가까이 있지만 뵙기 어려운 윤희숙 황순원 안진걸동지에게 인사보냅니다.

2008년 8월 3일 서울구치소 윤기진



최용근 님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 촛불집회로 구속된 최용근입니다

제가 구속된 이후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었고 그 이후 아무도 알아주는 이조차 없다고 생각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심수후원회로부터 책자와 후원 영치금을 전해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를 읽어보니 제가 양심수명단에 올라있었습니다.

가정은 물론 직장에도 일에 매달려서 마음의 여유조차 없이 생활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다 6월 4일 구속이 되고 보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아 느껴지고 앞으로의 기나긴 세월 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후원회소식은 고마운 소식이었으며 작은 희망의 물줄기와 같은 것이 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제가 양심수명단에 등록되었다는 것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또한 저를 정식으로 언론노동자로 인정해준 협회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소식지와 후원에 뜨거운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2008년 7월 31일 늦은 11시 서울구치소 최용근드림



윤희숙 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현 선생님과 어머님들께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건강일지 않고 잘 계신가요?

한칭 부의장 윤희숙입니다. 종로경찰서에서 면회 때 뵈게 었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었그제 서신을 전해주는데 ‘양심수후원회’ 봉투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영치금을 보내신 모양이구나! 하고 혼자 짐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민가협양심수후원회’란 활자를 보니 보는 것만으로도 반갑더라구요.

밖에 있는 동지들 소식이 제일 궁금하고 그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안 생활에 잘 적응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 분이 같이 쓰는 2인실인데 그리 번잡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게 잘 지냅니다.

밖에서 늘 불규칙한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 오히려 몸을 돌보고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운동과 함께 108배를 하면서 밖에 있는 동지들 생각도 하구요.

많은 일을 남겨놓고 들어와 있는 것이 죄송한데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면회를 와주시고 또 언론을 통해 소식을 들은 얼굴 모르는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시기도 하셔서 과분한 애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촛불을 아 끼고 지지하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것 같습니다.

신문에 전해오는 소식들만 봐도 나라 안팎으로 사고만 생기는, 국민을 걱정시키는 한심한 정부인 것 같습니다. 그와중에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가 그야말로 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1일에 1차공판을 진행했고 다음 일정은 8월 11로 잡혔습니다.

변호사얘기로는 심리를 여러 번해서 촛불집회의 전반적인 상황 의의 등에 대하여 다룰거라 합니다. 1차 보석신청이 기각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나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는데 그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준비도 잘하고 열심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가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들릴려구요. 그동안 인사도 못드렸습니다.

늘 청년들에게 애정을 갖고 살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진해서 선생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삼복더위에 부디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08년 7월 29일 윤희숙드림



이지경 님의 편지

권오현회장님 그리고 후원회 활동가님들 구속 후 2년이 넘도록 늘 반기만 했습니다.

감옥 독방에 앉아남는 것이 시간인데도 자주자주 안부의 소식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늘 주시는 사랑과 관심이 제게는 너무 과분합니다. 살뜰이도 챙겨주시는 그 마음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더 강력한 투쟁으로 세상의 변혁에 복무하겠다는 다짐으로 진 빚을 갚고자 결심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양심수 명단을 봤더니 꽤 오래 감옥에서 버티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들이 구속당한 육체의 부자유보다는 부족함을 채곡채곡 채우는 정신과 의식의 자유를 맘껏 누리는 기간이었습니

다. 옥중의 소중한 경험과 고민들이 자본과 붙어 싸울 때 쓰여진다면 이또한 빛깔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통해 백골단 부활이란 제목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백골단의 부활로 이명박정부는 완전히 80년대의 독재로 완전히 회귀한 듯 느껴졌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언론 길들이기를 통해서 정권이 나팔수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들 정부의 모든 조직들은 대대적인 숙청을 통해 보수 우경화 작업들 그리고 백골단을 통한 국민탄압으로 독재를 완성해서 부자와 재벌의 나라 강부자고 소영의 나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하느님께 봉헌한다고 합니다.

이 미친정부 미친정권에 국민은 정말 미치고 있습니다.

미친정권을 이끌고 있는 미쳐 날뛰는 관료들은 아무래도 한몫 씩 광우병 검사를 해야할 듯 싶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광우병 걸려 미친것이 아니고서야 어찌 저들을 대한민국의 고위관료라 하겠습니까?

미국의 축산업자가 파견한 직원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지요. 세계의 캥페보스 부시의 말 잘 듣는 푸들이 되 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이 나라의 모든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본과 미친 정권에 맞서 싸우는 이 땅의 노동자계급의 선택뿐입니다. 그들의 탄압에는 짱돌로 백골단의 공격에는 화염병으로 맞서야 하지 않을까요. 수십년간 수만명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온전히 지켜내는 길은 더 강한 단결과 투쟁만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으로는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만 그래도 낮에는 여전히 폭염입니다. 감옥에서는 건강챙기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과입니다. 처음 감옥에 오신 동지들 감옥도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사회입니다.

감옥 밖에서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조급하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줍니다. 마음편히 잡수시고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一切唯心造라고 했습니다.

권오현 회장님 그리고 후원회 가족분들 감옥에서 더운 여름나고 계시는 구속동지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8년 8월 6일 김천교도소에서 이지경드림

김명호 교수의 재판 결과를 보고

강내희 | 중앙대 영문학과교수

작년 2007년 10월 15일의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금년 3월 14일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김명호 교수 사건은 따지고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김명호 교수는 수학자이다. 수학자라면, 그리고 교수라면 당연히 연구실에 있어야 한다. 그런 그가 지금 감옥에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김명호 교수가 대한민국 사법부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고등법원 판사 박흥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김명호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이라면 보통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형량이다. 그런 형량을 선고한 것을 보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김명호 교수와 박흥우 판사 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명징한 판단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사건을 어처구니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법부가 유죄판결의 근거로 제시하는 모든 증거나 이유가 도대체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언어도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상식은 우리에게 법원의 그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판단과 결론을 말해준다. 무엇보다 김명호 교수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박흥우 판사의 주장 자체가 입증되지 않았다. 자칭 '피해자'의 진술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타칭 '가해자'가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이유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김명호 교수는 지금 감옥에 있다.

김명호 교수는 흔히 '석궁교수'로 알려져 있다. 그의 사건은 '석궁사건'으로 또는 '석궁테러'로 입장에 따

라서 다르게 불리기도 한다. '석궁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쪽은 그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반면, '석궁테러'라는 표현을 쓰는 쪽은 그를 범인 취급하는 편이다. 전자의 경우 그는 '석궁사건'의 주인공 또는 희생자로 인식되고, 후자의 경우 그는 일종의 테러범으로 인식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명호 교수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은 그를 석궁사건을 일으킨 행위자, 또는 석궁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로 보는 해석보다는 '석궁테러의 주범'으로 보는 해석이 재판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준다.

김명호 교수가 '석궁사건'의 주인공 또는 희생자가 아닌 '석궁테러의 범인'이 되는 데에는 과정과 요건이 필요했다. 여기서 그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문제의 과정이 대한민국의 경찰 및 사법 권력, 보수언론 등에 의해서 관리되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해야 한다. 사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박훈 변호사가 제출한 발표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석궁테러'는 커녕 '석궁사건'마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이번 사건의 모습이다. 우선 피해자라는 고등법원 판사 박흥우의 진술은 진술자의 정체성이 과연 판사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오락가락 그 자체이고, 경찰이 수거했다는 증거물 또한 현장보전이 전혀 되지 않아서 경찰과 검찰에 의한 증거 조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데다가 재판과정은 재판과정대로 아마 대한민국이 지속하는 한 최악의 판결 사례로 남을 만큼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명호 교수는 지금 감옥에 있다. 자신이 연루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불분명한 한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석궁테러의 범인으로 둔갑해버렸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15일 고등법원 판사 박홍우가 김 교수가 쓴 석공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현직판사에 대한 ‘석공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다. 처음 언론이 ‘석공테러’라는 표현을 쓴 것은 ‘피해자’ 박홍우의 진술만 받아 적은 경찰이 발표한 사건 개요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자신은 석공을 쓴 적이 없다는 ‘가해자’ 김명호 교수의 발언이 소개된 뒤에도 주요 언론은 ‘테러’라는 표현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일방적인 사건 성격 규정을 언론이 수용하자 사법부도 얼씨구나 하고 춤을 췄다. 1월 19일 사법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석공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로 규정하고 “엄단”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나선 것이다. 이후 김명호 교수가 박홍우 판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재판에 대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지만 그 내용이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번 사건은 결국은 ‘석공테러’로 규정되었고, 2007년 10월 15일, 2008년 3월 14일에 있었던 1심 재판과 2심 재판에서 김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를 해둔 상태이다.

이 모든 것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의해서는 의도적으로 무시되었지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난 진실은 ‘석공테러’는커녕 ‘석공사건’조차 과연 일어났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김명호 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그가 유죄라서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자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되고, 증거 아닌 증거가 제시되어도 아무런 실증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재판 아닌 재판이 진행된 결과일 뿐이다. 이 정도 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사법부가 썩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의 언론이 썩었기 때문이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에는 멋대로 하는 지배블록이 있기 때문이다.

김명호 교수 사건과 관련하여 잊어서는 안 될 사실

이 하나 있다. ‘석공교수’가 되기 전 김명호 교수는 성균관대에서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였다. 오늘 김명호 교수가 감옥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왜 재임용에 탈락했는가? 1994년 성균관대의 입학시험에 제출된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원인이었다. 수학자 김명호 교수가 이후 학교에서 쫓겨나고 급기야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은 그가 잘못된 일을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데 있다. 그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석공테러’의 범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그가 ‘석공교수’가 되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가 ‘석공교수’가 된 것은 그가 재임용에 부당하게 탈락했기 때문이고, 그가 재임용에 부당하게 탈락한 것은 그가 자신이 속한 대학의 중대한 실수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은 그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인 것이다!

김명호 교수 사건의 본질은 한 교수가 정의로운 행동을 했으나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그런 점을 묵살하고, 그를 범죄인으로 만든 데 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어떻게 정의로운 한 인간을 죄인으로 낙인찍을 수 있는가? 오늘 사법제도가 정의로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구도로 작동하고 있고, 오늘 우리 사회가 사법제도로 하여금 그런 만행을 저지르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사회가 민주화되었다고 하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지만, 이는 착각이다. 절차상으로는 형식적으로 보면 우리사회가 민주화된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그 민주화가 전혀 실질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보면 형식적, 절차적 민주화는 실질적 비민주주의, 사회적 불평등을 호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김명호 교수의 의로운 행위는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 실질적 비민주주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그의 교수직을 박탈해 되는 지탄받을 일, 그를 4년이나 감옥에 가둘 판결의 합법적 이유가 되었다. 사법절차와 같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요건이 개인의 기본권 옹호라는 더 실질적인 민주주의적 가치를 짓밟는 장치이자 수단으로 바뀐 것이다.

김명호 교수 재판의 본질은 이렇게 보면 사이비 민주주의의 대 실질적 민주주의의 투쟁이다. 김 교수가 4년의 징역을 받은 것은 그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깨닫고, 실질적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투쟁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그는 성균관대의 입시 오류에 대해 눈감아 주기보다는 의롭게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대학을 개혁하고자 했다. 그는 입시오류의 폭로로 성균관대학이 입을 불이익 이전에 입시를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험생들 전체의 권익을 먼저 생각했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패썹죄에 걸려 학교에서 쫓겨나고,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 했으나 사법 권력이 오히려 대학권력의 편을 드는 것을 보자 그는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고 사법 권력에 대해서도 저항하기 시작했다. 그가 사법 권력과 타협했다라면 혹시 제임용에서 구제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사법 권력이 보인 잘못된 행태, 예컨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나 위법 행위와 같은 문제들을 날날이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사적인 이해에 큰 손해가 올 수 있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드디어 그는 박홍우를 정치하기 위해 석공을 들고 항의를 하러 갔는데, 그로 인해 그는 지금 감옥에 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는 형형한 눈빛으로 한국 사법제도와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명호 교수가 석공을 든 것은 모든 부당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나쁜 것들, 모든 있는 것들에 맞서 일어난 행위, 저항의 행위였다. 비록 그 모습은 황야의 의인처럼 외로운 것이었지만 그의 뒤에는 각종 사회 권력의 희생자로 내몰린 못

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 동성애자와 같은 수없이 많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서 있다고 봐야 한다. 의인은 혼자이지만 혼자가 아닌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은 따라서 결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니다. 김명호 교수가 근거도 없이,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관점에서 보면 필연적이다. 사회구조적으로 그는 다른 소수자들과 함께 사법부를 자신의 통치 기구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 지배블록의 통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가 사법부에 의해 구제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착각이다. 오늘의 사회 구조 속에서는 사법부의 맹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어찌 그것이 사법부만의 맹성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사법부가 바뀌려면 우리 사회의 성격 자체가 바뀌어야만 한다.

김명호 교수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의 변혁까지 겨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입시오류 지적, 대학당국으로부터의 징계, 제임용 탈락, 사법부에서의 패소, 석공 시위, 그리고 최근의 항소심에서의 4년 언도 등으로 이어지는 김명호 교수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 전체의 성격을 수정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성격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운동에 더욱 진력해야 한다! 김명호 교수의 재판 결과를 보며 드는 생각이다.

무더위를 식혀주는 비속에 산을 오르다

편집부



6 · 15 한마음 통일산악회 7월 산행의 날이다. 1,4호선이 교차되는 금정역에서 23명이 모여 경기도 안양시와 군포시에 걸쳐있는 산세가 수려한 수리산으로 오른다. 이른 아침부터 비가 억세게 쏟아졌지만 10시쯤 회원들이 모일 때는 잠시 날이 개어 푸른 하늘이 보이기도 했다. 수리산악수터입구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여 사교의 광장을 거쳐 노랑바위쪽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비가 내린 뒤라 울창한 숲속의 계곡은 맑고 시원한 물이 팔팔거리며 바위를 넘나들며 흘러내리고 있어 유쾌한 물소리를 동무삼아 산길을 올랐다. 노정바위쥘에서 맛있는 오이를 안주삼아 시원한 막걸리로 목을 적신 후 정상인 태을봉까지 오를 대원과 수리산 허리를 따라 산책로가 잘 다듬어진 길로 험터까지 가서 기다리기로 한 대원으로 나누어졌다.

태을봉으로 오르는 길은 급경사인 데다 습기 많은 더운 날씨 때문에 산행팀은 너나 할 것 없이 땀으로 옷을 다 적셨다. 15명이 태을봉에 올랐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다.

뒤늦게 따라 올라온 통일뉴스 후원회의 유영호회원과 범민련 강인옥회원이 용기있게 태을봉에 올라왔다. 다시 산을 내려와 쉼터로 내려가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산책길을 따라간 팀은 원래 만나기로 했던 쉼터보다 더 내려가고 있었다. 비가 내려 비를 피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였다. 오후 한 시쯤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전각에 모두 만났다.

챙겨온 점심을 나누어 먹고 늘 그랬듯이 통일뉴스 범민련 양심수후원회회원 등 반가운 소개시간을 가질 즈음에 뒤늦게 김호현 임미영 회원이 전각을 찾았다. 비 때문에 초대하기로 한 군포에 사시는 리영희선생님께서 오시지 못하여 예정했던 산상강연을 따로 하지 못하고 금강산피격사건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주장문제 6자회담관련 등 정세보고형식으로 권오현회장이 대신하였다. 그리고 다음 산행부터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좀 부지런을 꾀워 한 시간 일찍 산행에 나서기로 약속하였다. 귀가길에 김재현회원이 추천하고 비용을 부담한 들깨 수제비와 아구찜을 아주 맛있게 나누어먹고 막걸리로 뒤통이를 기분 좋게 마감하였다. 비가 오는데도 빠지지 않고 산행에 동참해준 선생님 또 회원들은 같이 또 따로 빗속에 집으로 돌아가다. 후원회에서는 박희성 김영승선생님 김지영 김재선 신현익 나순석 김래곤 변외성 박강혁 예쁜딸 모성용 김재현 송지영 이용준 권오현 함께 하다.



도시의 끝

9월 6.15한마음통일산악회 정기산행

- 장 소 : 북한산
- 일 시 : 2008년 9월 21일(일) 오전 9시
- 모이는 곳 : 우이동 종점 그린파크앞
- 준 비 물 : 간단한 도시락과 회비 3,000원



분단 63년, 분단정부 60년, 한국전쟁 58년, 외국군 주둔 63년에 즈음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과제와 방향

강정구 | 평화통일연구소

2부 한반도 평화 현주소와 미국

1. 전쟁위기의 경험적 사례분석과 미국

1) 냉전기 4번의 전쟁위기

1>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

: 3차전쟁 발발 시 남한배치 1000여 핵무기 때문에 남의 대리전쟁터 불가피

2> 1968년 상호 적국 관계인 미국의 정탐선이 이북 영해를 침범해 나포되었던 푸에블로사건

: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고유권한인 주권의 행사로서 적국 정탐선 나포는 정당행위

: 이에 미국은 전쟁으로 대응하려했으므로 전쟁위기를 주도한 책임은 미국에 있음

3> 1969년 미국의 스파이비행기인 EC-121 정찰기 격추사건

: 위의 경우와 동일한 성격으로 미국의 전쟁위기 책임론

4> 1976년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 판문점에서 미군장교 두 명이 미루나무를 무단절단하려하다 북한병사에 의해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격투가 벌어져 미군장교 두 명이 살해된 사건 발생

: 미국은 B-52에 핵무기를 싣고 한반도 연한까지 대기하는 최악의 전쟁위기 직면

: 북한인민군사령관의 유감표시로 전쟁위기 넘김

: 미국 사람 두 사람이 죽으면 그 대응방식으로 수백만 또는 수천만이 죽을 전쟁을 택하는 것이 과연 문명국의 행위인가? 더구나 핵전쟁을 상정한 전쟁위기 조



성은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악몽임

2) 탈냉전기 8번 전쟁위기 현황

1> 1991-92년 120일 전투시나리오 등 제2의 한국전쟁위기

2> 1994년 6월 '한 두 시간??만 늦었더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던 영변 핵위기

3> 미국의 인공위성 사진으로 이북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단정 짓고 모의 핵폭탄 BDU-38로 핵전쟁 실전연습까지 벌였던 98-99년 봄의 금창리 핵위기. 이후 사실무근임이 밝혀짐

4> 휴전이후 최초의 정규군에 의한 무력충돌이라는 99년의 1차 서해교전

5> 2002년 부시의 '악의 축' 전쟁위협으로 작게 5027-02 비밀리에 작성--한국정부와 협의 없이 대북 선제공격

6> 2002년 2차 서해교전

7> 이라크전쟁 직후인 2003년 8월 전쟁위기와 이후 진행된 미국의 대북 봉괴전략 작계5030

8> 04년 미국 대선에 즈음한 10월 전쟁위기, 2005년 6월 전쟁위기

3> 전쟁 주도율: 미국 10/12, 이북 1/12(2차 서해교전), 남한 1/12(1차 서해교전)

4>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전쟁주도율은 미국이 10/10=100%, 남북 0/10=0%

: 우발적 충돌 결과인 서해교전을 뺀 나머지 9번은 모두 미국이 의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전쟁주도

5> 결론

<1> 주한미군 덕분에 전쟁위기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때문에 전쟁위기 직면.

<2> 북한전쟁위협론은 허구이고 진실은 미국전쟁위협론임

<3> 이런데도 평화협정 논의에서 미군철수와 군사동맹해체를 제외하는 것은 허구적 평화협정에 불과

2. 평화협정(전쟁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 통해 본 미국의 반평화성

1) 이북= 정전협정 직후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평화협정과 불가침협정 체결 촉구

2) 미국= 지속적인 거절. 북핵 해결의 지름길인 불가침조약도 지속적으로 거부

3) 이남= 미국에 추동해 거절해 오다 겨우 김영삼 정권에서 관심, 김대중-노무현 본격추구

4) 북핵과동의 평화적 해결을 걸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을 거절하고 있으며 핵태세보고서, 악의 축, 부시독트린 등에서 대북 핵선제공격 명시.

5) 미국은 '06년 북의 핵실험 이후에서야 정전협정 55년 만에야 07년 2·13합의로 본격적인 관심 표명

3. 공지전과 선제공격 전략 중심의 연합사 작전계획 변천사로 본 미국의 반평화성

1) 한국전쟁 직후--1973 기간: 남침 시 휴전선 원상회복 방어전략

2) 1973- 1980년 중반: '전진 방어(Forward Defense)' 전략으로 개성까지 점령

3) 1980년대 중반: 적의 종심(縱深)을 파고드는 공중강습작전(공지전) 전략으로 '북한 점령 작전' 포함

4) 5027-92: 한미 해병대 원산 상륙작전 계획과 한미 보병의 평양 포위작전 포함

5) '작전계획 5027-94'의 5단계 내용

: 1단계 신속전개 가능한 억제력 강화

: 2단계 북한의 서울 이북 남침 저지, 북한 후방 파괴

: 3단계 북한의 주요 전력을 격멸과 원산 등에 대규모 상륙작전 전개

: 4단계 평양 고립, 점령지역 군사통치 실시

: 5단계 한미동맹 주도하 통일

6) 5027-98 '선제공격 전략'

: 전쟁 준비의 '확고한 증거'(unambiguous signs) 포착 경우 북한 포병 부대와 미사일·공군 기지 등을 '선제공격으로 파괴', 미 육해공 합동 상륙 작전으로 북한 허리 두 동강 내 북한 점령 신속 마무리

7) 2000년도 5027 미국의 한반도 증원 전력 대폭 확대.

: 90년대 초 48만명, 90년대 중반 63만명, 2000년 개정 작계에서는 증원군을 69만명

: 5027-02 김정일 위원장 암살계획과 한국정부 몰래 대북침략 계획 포함

8) 2004년 '우발 상황' 확대 적용, 정밀타격, MD체제 포함 5027-04로 변한

: 이전까지 5027이 적용되는 '우발'(contingency) 상황은 북한 남침, 확고한 남침 징후 포착 경우

: 이제 북한이 미국의 북쪽에 보복공격에 나서는 상황도 우발계획에 포함

: 미국 선제공격에 대한 북한 응전도 전쟁 개시의 조건으로 규정한 작계 5027-04에 의해 RSOI-FE 훈련 실시

9) 38차 한미안보협의회의 '06년 10월10일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워싱턴 포스트 10월 28일)

: 한미연합사 작성 작전계획 5029 5개 시나리오

1> 쿠데타 등 북한 내전상황- 북측지역으로는 진입하지 않되, 한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봉쇄

2> 북한 내 반군 등이 대량살상무기 탈취해 위협-

한미 양국군 특수부대 투입 무력화

3> 대량 탈북난민사태 발생 - 군부대 임시수용 후 정부기관 인계

4> 북한지역 내 한국인 인질 발생 - 군 투입 구출작전

5>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 인도주의적 군사지원 작전
: 위 급변사태 발생 경우 방어준비태세 '데프콘 3' 발령('데프콘 3' 경우 미국작전지휘권 장악)

10) 미·일 한반도 대비 '02년 개념계획5055를 세 부적으로 실천 가능한 공동작전계획5055마련 중

: 미 의회조사국 래리 닉쉬--북핵문제 외교적 해결 회의론 때문(070105)

: 한·미 공동작전계획5027, 북한 붕괴-쿠데타 발생 등에 대비한 개념(작전)계획5029와 연동

: 작계 5027을 북한 핵전에 대비 감시정찰과 선제타격, 핵방호 계획 등 강화 전략지침

4. 대북침략 작전계획 5026 · 5027 · 5028 · 5029 · 5030 +5055 + '콘 플랜8022 +충무계획

1) 5026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공격
2) 5027 대북 선제 핵 공격 위협 및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는 주한미군의 작전계획

: '우발 상황'을 확대 적용한5027-04

3) 5028 우발계획(contingency plan)

4) 5029 북한 내부 소요나 내란 등으로 인한 체제 붕괴나 대량 난민 발생에 대비한 작전계획

5) 5030 의도적으로 군사긴장을 도발해 북한 군사 경제력을 소진시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킨다는 작전으로 북핵위기를 장기화, 북한의 내부적 궤멸을 초래하는 계획

6) 8022 북한과 이란을 목표로 한 작계로 2004년 여름부터 시행중

1>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기존의 재래식 공격과 핵 공격을 혼합한 새로운 선제공격 계획

2> B-2와 B-52 폭격기가 항상 비상대기 해 전 세계 어디든지 만나질 안에 공습 가능

3> 지하시설 공격용 벙커버스터 폭탄을 비롯해 핵

무기 사용 선택방안 포함

7) 남한의 독자적 작전계획 (041004 국회국방위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내용).

1> 충무 3300은 북한난민 발생 시 대응책이고

2> 충무 9000은 북한정권 붕괴 시 북한 지역 비상통치 계획

8) 미일의 작계 5055

5. 대북 전쟁연습 매년 정기 실시와강화

1) 3월 하순 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E)의 통합 전쟁연습, 08년은 키 리졸브로 대체

2) 8월 하순에 실시되는 을지포커스렌즈(UFL),

3) 기타 림팩 등 태평양에서 북한 겨냥 수시로 전쟁연습

4) 03 '가을부터 실질적인 저강도전쟁 시행 중(<세계일보> 2006-01-31 05판 05면)

1> 06년 1월30일 '일본재단' CIA 극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한반도의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 보고서

2> 5030 애초 내부 교란작전용 + 국방정보국(DIA) 군사작전까지 포함시킨 개념으로 수정·발전

3> 작계 5030은 <북한군의 식량 등 전시비축물을 고갈시키는 지속적인 한미 군사훈련>북한 항공기 연료를 소진시키기 위해 북한 항공기의 잦은 긴급발진을 유도하는 불시 정찰비행<전단 살포 등으로 내부혼란 조장>정권 핵심인사와 그 자녀들의 망명 지원<김 위원장의 자금원을 막기 위한 외화유입경로 차단>

4> 이에 따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북한 계좌 폐쇄><오극열 노동당 작전부장의 장남 오세욱 전 인민군 대좌의 망명 지원> <북한 상공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 등 전단 살포> <김 위원장 소재지로 추정되는 장소에 F-117 스텔스 전폭기를 출동시켜 위협하는 작전>

5) 핵태세보고서(NPR) 이북에 대한 선제공격 0순위 설정과 그 실행계획 콘플랜 8022

1> 2001년 12월 31일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의회 제출

- 2> 북한,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5개 불량국가, 중국, 러시아 7개국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목
- 3> 북한, 이라크는 '고질적인 군사적 우려 (chronical military concerns)' 대상국으로 공격 0순위에 선정
- 4> 이 핵전쟁 계획서로 개념계획 8022
- 5> 태평양 · 유럽 · 북부 · 중부 · 남부 등 5개 전구를 단일 전구화해 지구 상 그 어느 곳도 한 시간 내에 타격하는 글로벌 스트라이크하는 개념계획
- 6> 핀 포인트 공격, 지하 군사시설 파괴, 마사일망 · 방공망 등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전쟁, 북한 핵 시설, 핵무기 등을 장악, 탈취하기 위한 특수작전 전담부대 투입 등의 내용
- 7> 작계가 수립된 2003년은 한반도 전쟁위기설(페리 12월 중 전쟁, 래리 닉스 9월 중 예고) 증폭
- 8> 이 작계는 미 전략사령부가 자체 전력과 전구 및 기능 전투사령부 지원을 받아수행 예견
- 9> 전략사령부 임무는 핵과 재래식 전쟁, 우주, 글로벌 스트라이크, MD, 사이버 전장, C4ISR, Combating WMD로 확대, 2002년 10월 1일 우주사령부 예하 편제, 공군전투사령부-태평양합대사령부-대서양합대사령부 등을 구성부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각종 영상정보와 신호정보 등도 전략사령부 전달

4부. 주한미군 불가피론의 허구와 철군에 관한 낙관적 전망

1. 주한미군 철군의 합리성과 당위성

1. 외국군주둔 62년 이란 치욕의 역사를 종결하고 새로운 자주역사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
2. 통일신라 당시 10년 내 당의 안동도호부 축출이후 원, 명, 청, 일본 등의 외국군 주둔 가운데 최장의 일본군 40년의 1·5배를 이미 초과했음
3. 평택기지 이전 후에 100년을 더 주둔하겠다는 기지사령관의 발표
4. 미군주둔의 당위적 논리로 주장되어 왔던 북한전

쟁위협론, 남한군열세론, 동북아세력균형론 등은 허구
5. 오히려 미국전쟁위협론, 남한군열대우세론, 미군주둔의 동북아패권론이 역사의 진실.

6. 한반도 평화위협과 통일가로막기 주도, 동북아신냉전의 첨병인 미군의 철군은 평화체제 기본조건

.....
다. 동북아세력균형론

1. 주장

: 남한군열세론이나 북한전쟁위협론이 진실이 아닌 허구임이 널리 알려져 대체물로 등장

: 한반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불가피하다고 봄

2. 동북아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군사비비균형현황

- 1) 한 · 미 · 일 해양군사동맹 5900억: 미국 '08년 5100억 '07년 4800억 '06년 4400억(태평양사령부 몫은 1/3) 일본 450-500억, 한국 '08년 290억 '07년 250억 '06년 230억
- 2) 북 · 중 · 러 대륙군사동맹 700억 미만: 중국 '07년 449억(3472억3200만위안-07년 3월5일 전인대 제10기 제5차회의 보고), '06년 351억 '05년 299억), 러시아 200-250억, 이북 5억
- 3) 현재는 미국의 5천1백억이 빠져야 동북아세력균형이 성립될 정도로 전형적 불균형이고 동북아미군이 존재하는 한 동북아패권 관철
- 4) <2006 국방백서> 군사비 '06년 미국 4393억 중국 351 러시아 222 일본 431

3. 동북아 세력균형과 조정자로서 주한미군의 허구성

- 1) 미국의 동북아정책
: 미일군사동맹 강화와 군사대국화 추진으로 중국과 러시아 봉쇄정책
: 미일신안보선언, 미영동맹수준의 격상, 미일신방위 협력지침, MD, 일본의 전쟁국가화
- 2) 주한-주일 미군은 동북아패권과 신냉전의 물적 토대
- 3) 동북아 세력균형이 아니라 전쟁위협과 긴장의 근

원으로서 주한미군의 위상을 정확히 파악 요

4) '동북아 세력균형자'로서 주한미군의 역할 설정
은 미국이 한국군을 하위 군사동맹으로 확고히 편입시키고, 영구주둔 위함

5) 동북아세력균형의 긴요 사항— 미군의 동북아 전면철수와 일본의 군사대국화 억지

4. 대안: 통일한국의 동북아균형자와 평화조정자 역할

: 중립자로서 동북아 세력균형자와 평화조정자로서 적극적이고 민족 자긍적인 통일한국(조선) 위상 설정
: 동북아협력체의 전망과 결합되는 한반도시대 추진

5. 남북의 동북아균형자 역량 현황

1) 남북경제력 세계 10-11위
2) 남 군사비 230억 달러로(06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독일,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8위

3) 푸대접 받는다는 해군력('06년 수준)

: 이지스함 도입 등 대대적 증강계획 단계인 지금도 현대전의 필수조건인 1천t 이상 전투함 숫자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능가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

: 밀리터리 밸런스 2003~2004 이탈리아 18, 스페인 16, 독일 13, 영국 34, 프랑스 34, 한국 41(최근 완공된 4천 5백톤 문무왕 구축함, 경항모 13000톤급 독도함 포함)

4) 국방중기계획 05-09년 5년 동안 무려 99조 투입 초기경보통제기(AWACS),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차세대 미사일 등 온갖 첨단무기 도입 경우 하드웨어 수준의 군사력 세계 6-7위권

Ⅲ. 주한미군 철수 전망

1. 과거 현황

: 맹목적 승미와 대미 자발적 예속주의에 빠진 한국 사회 기성주류

: 미국과 주한미군철군에 관한 한 패배주의에 빠진 시민운동진영

: 이 결과 53년 정전협정 4조 60항의 약속사항인 외국군철군과 통일이 지금까지 지연

2.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의 다변화

: 개인과 민족의 생명권, 국가사이 평등권, 한강 독극 물계기로 환경권, 매향리 폭격피해로 생활권, 주한미군 범죄에서 한국인의 인권, 군사작전권과 자주권 중심의 주권, 통일권, 평화권과 생명권, 우리 땅을 되찾겠다는 재산권 등의 차원으로 확대

3. 대중성 획득

: 미시적 삶의 차원과 자주적 민족사 행로라는 거시적 차원의 문제의식이 결합

4. 사회운동단체와 기지 주민의 연합

: 무건리, 평택, 제주 주민들의 생활권이나 생존권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운동에 동참

* 분량이 많아서 1부 생략하고 2부 줄여서 실었습니다. 원본은 후원 회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서 볼 수 있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8년 8월 20일 현재 총 ??명 | 민가협 조사집계

이름	분류	소속	사건 명	구속 날짜	적용 법규	형량	만기 일	수감 지	기/미결
김대진	노동자	건설노조경기중서부	임단협(군포 한신공업)	2008.6.20	업방폭력			수원구 728	미결
김명복	건설계서부	조합원	08년 6월 건설기계(덤프) 총파업	2008.6.25				인천구 1842	미결
김명호	민교협	전 성균관대 교수	석공 사건	2007.1.17			20 10.1.	의정부교 2068	기결(4년)
김승인	화물대광주부	대의원	기아차(소하리)카캐리어 복직투쟁	2008.6.7				수원구 331	미결
김정탁		퀵서비스노동자	08년 촛불항쟁(조선일보 항의투쟁)	2008.6.27				서울구 197	미결
김중안	한해노조부	부지회장	06 하이스코 순천공장 집회건	2008.5.10				순천교 170	미결
김형주	진보신당	미술 작가	08년 촛불항쟁(인터넷 게시물)	2008.6.27				서울구 1339	미결
김정용	재야	전노련	노점단속반대	2008.7.9	특공집시			서울구 113	미결
김재진	노동자	민주노총(전남)	광양항노동조합설립관련	2008.4.4	특공업방			순천교 103	미결
김종구	재야	전노련	이근재열사 추모집회(07년)	2007.10.16	집시,폭력	1년6월	항소중	인양2251	미결
김종안	노동자	한해노조부	확약서 이행 촉구	2008.5.10	특공			순천교 170	미결
김차수	재야	한국사회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7.9.13	병역법	1년6월	2009.3.	여주교 1538	기결
김형주	노동자	개인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6.27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구 1339	미결
김홍석	노동자	화물연대(서경지부)	6월 총파업	2008.6.16	업방공동상해			평택구 210	미결
마영국	노동자	용접공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7.2	특공 치상			서울구 186	미결
문영민	노동자	금속노조(충남)	경남제약 해고자 복직촉구	2008.2.13	업방폭력			천안구 2004	미결
박장태	화물연대부서	조합원	망향휴게소노조 연대투쟁(법정구속)	2008.4.29				대전교 2979	항소중(1년)
박경식	재야	개인	일심회	2007.2.1	국보	3년6월	20 10.8.	광주5051	기결
박장태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18	업방특공	1년6월	항소중	대전2979	미결
박종갑	노동자	민주노총(대전)	한미FTA 반대 집회(11/22)	2007.3.16	집시,공방	1년6월	2008.9.	공주교 1303	기결
박종기	재야	민주노동당	북한 방문	2006.10.23	국보	2년 6월	2009.3.	전주교 2500	기결
박창식	노동자	금속노조(충남)	경남제약 해고자 복직촉구	2008.2.13	업방폭력			천안구 2172	미결
서상윤		일용직 건설노동자	08년 촛불항쟁(집회)	2008.6.21				서울구 161	미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수정동)	강제철거반대	2005.5.3	화염병치사	4년	2009.5.	장흥교 11	기결
손정목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국보	4년	20 10.10.	대구교 45	기결
양철봉	노동자	화물연대(전남)	6월 총파업	2008.6.17	업방폭력			순천교 115	미결
양태조	노동자	민주노총	한미FTA 반대(07) 등	2008.1.7	집시,특공			영등포구 3413	미결
여우성	노동자	전해투	복직촉구 집회관련	2008.5.14	업방명예훼손			서울구 1227	미결
오승록	군인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7.1.24	병역법	1년6월	2009.6.	여주809	기결
유성현	학생	대학생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6.23	공용물건손상			서울구 19	미결
유정민석	학생	동국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7.8.17	병역법	1년6월	2009.2.	여주교 1535	기결
윤기진	재야	법청학련	법청학련, 한총련 불탈퇴	2008.2.28	국보			서울구 96	미결
윤문채	노동자	개인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6.9	집시공용물건손상			서울구 183	미결
윤학수	재야	한청,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6.25	집시			서울구 221	미결
윤희찬	노동자	교사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6.30	집시			서울구 20	미결
이병식	화물연대부서	조합원	망향휴게소노조 연대투쟁(법정구속)	2008.4.29		항소중(1년)		대전교 1462	
이용대	건설계총회부	지부장	대우건설 단체협약 불이행 항의투쟁	2008.2.15		항소중(10월)		청주교 499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이희만	전북선교회	조합원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2007.9.26		기결(년+년월)	2010.3.	대구교 1154	
이상돈	노동자	개인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6.09	특공치상	항소중		서울교 75	미결
이정수	재야	전노련	이근재 열사 추모집회(07년)	2007.12.24	집시, 폭력	3년	항소중	인양 1295	미결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4	국보	3년	2009.10.	전주교 2510	기결
이지경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2006.7.13	업방폭력	3년6월	2009.2.	김천교 709	기결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	2009.10.	안동교 3010	기결
장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국보	7년	2013.10.	대전교 4009	기결
장욱기	노동자	건설노조(광주전남)	건설기계 순천투쟁	2008.3.10	집시법, 특공			순천교 857	미결
정영철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0.31	업방특공	1년6월	항소중	대전 3161	미결
정원영	노동자	금속노조(충남)	경남제약 해고자 복직촉구	2008.2.13	업방폭력			천안교 2170	미결
정재훈	재야	개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7.5.22	병역법	1년6월	2008.12.	영등포교 789	기결
정철운	재야	전철연(오산 수청동)	강제철거 반대	2005.6.8	폭력, 화염병치사	3년+6월	2008.12.	안동교 15	기결
정청화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19	업방특공	1년6월	항소중	대전 1510	미결
정희성	노동자	민주노동당(광주전남)	한미FTA 반대 집회(11/22)	2007.4.30	집시, 공방	1년6월	2008.10.	순천교 1622	기결
제종규	노동자	알리안츠생명노조	성과급제 도입 반대 파업	2008.5.7	업방			영등포교 3410	미결
조덕휘	재야	전노련	이근재 열사 추모집회(07년)	2008.5.7	특공집시			의정부교 780	미결
조순동	노동자	화물연대(대전)	망향휴게소 노조 연대활동	2007.10.22	업방특공	8월	항소중	대전 2672	미결
진영욱	민주노동	수석부위원장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동당 파업(7/2)	2008.7.30				서울교 209	미결
천등근	건설계 총재부	조합원	대우건설 단체협약 불이행 항의투쟁	2008.2.15			항소중(8월)	청주교 1255	
최용근		신문사 지국장	08년 촛불항쟁(인터넷 게시물)	2008.6.16				서울교 1561	미결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6	국보	3년6월	2010.3.	대전교 4003	기결
최용근	노동자	일간지 지국장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6.6	전기통신기본법			서울교 1561	미결
최인기	재야	전노련	이근재 열사 추모집회(07년)	2008.3.17	집시	2년	항소중	인양교 2710	미결
한인구	경건설기계지부	지부장	08년 건설기계 총파업(인산지역 단협투쟁)	2008.7.9				수원교 326	미결
한기석	재야	전노련	이근재 열사 추모집회(07년)	2008.3.7	집시	1년6월	항소중	인양교 2441	미결
허연	재야	한국진보연대(광주전남)	범국민대회(11/11) 관련	2007.1.21	집시, 특공	1년6월	2009.5.	장흥교 88	기결
황순원	재야	한국진보연대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6.30	집시			서울교 109	미결
인혁만	노동자	노동해방철거민연대	행신동 철거민 기자회견 관련	2008.7.30	집시			의정부 264	미결
김혜자	노동자	노동해방철거민연대	행신동 철거민 기자회견 관련	2008.7.30	집시			의정부 367	미결



감사드립니다

- 홍천에 계시는 방장권 선생님께서 간경화를 앓고 계시는데 치료차 부천(아드님댁)에 가시면서 만남의 집에 들러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빨리 병이 나으시길 바랍니다.
- 홍천에 계시는 조순영 회원이 강원도의 맛있는 옥수수를 만남의 집에 보내왔습니다.
- 북날마다 조순덕 단민가협상임의장님이 -늘 오셔서 선생님들 돌봐드리지만- 특별식 삼계탕요리해서 선생님들께 드렸습니다.
- 회원이자 출소양심수인 김익님이 8월 4일 입대하였습니다. 4주간 훈련을 공익요원으로 복무한다고 합니다. 입대 전에 김호현 부회장이 풍성한 정성으로 환송회 열어주었습니다. 조순덕 어머니 소수영 리정애 임미영 서미라 서현이 건우 함께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06년 10월말 경에 김승규 전 국정원장에 의해 ‘6.15이후의 최대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된 소위 ‘일심회’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입니다. 이 사건 초기에 당시의 국정원장까지 나서서 6.15이후의 최대간첩단 사건이라고 언론에 공표까지 하면서 사건을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확대시켜 놓았었습니다. 그러나 1년여에 걸친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진 사건의 진실은 처음의 그것에 비해 너무도 초라한 ‘일심회는 간첩단도 아니고 이적단체도 아니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더구나 며칠 전에는 당시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 전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전 국정원장과 국가가 함께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조작도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 수사에 임하고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첩단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함께 구속된 6명중 4명이 간첩혐의를 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건의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전자문서와 관련된 검증을 거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서 발생한 상황이며,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나머지 4명의 간첩혐의도 완전히 벗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희 가족들은 장담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 피해자 가족들과 구속자들은 백방으로 뛰고 노력하였으나 저희가 가진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검찰, 법원, 구치소, 국회, 교도소로 청와대로 각 단체로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고 가장의 무사한 석방을 위해 탄원서도 수도 없이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가정을 떠나 좁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을 아빠이며, 아들이며, 남편이며 동생이기도 한 한 가정의 가장의 석방을 위해 이렇게 탄원서를 쓰고 있습니다.

소위 ‘일심회’ 사건의 구속자 들은 80년대부터 구속되기 전까지 이 땅의 군사독재를 물리치기 위해 젊음을 바쳤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청춘과 열정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속한사회와 직장에서 제몫을 다해가며 열심히 살아왔던 평범하기 그지없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노무현 정부는 어이없게도 간첩으로 몰아 구속을 시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생이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2년이 다되어 갑니다.

함께 구속된 여섯 명의 사람들 모두 나이가 40대중반인 한 집안의 가장들입니다. 각각의 가정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으나 팔순을 바라보시는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중, 고등학생, 초등학교생, 유치원생 자녀 등 모든 가족들이 의지하고 따르던 가장의 구속으로 인해 건디기 힘든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파도 아프단 소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어 맨주먹으로 소리 없이 가슴만 치고 살았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 편히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부인이 남편을 창살 안에

두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자식이 아빠를 몇 년간이나 보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사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 가족들은 ‘이번에는 석방이 되려나?’ 하는 기대를 갖고 가슴을 졸이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갔고, 이명박 정부의 첫 사면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8.15특별사면에 또 기대를 해 봅니다.

말 그대로 특별 사면이란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하게 죄를 면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에 경축할 일이 있거나 새로운 국왕이나 정권이 출범할 때 주로 특별사면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그 대상 또한 권력의 비호를 받지 못하는 힘없는 백성들이나 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희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삼국시대부터 새로운 국왕이 등극할 때마다 흉악범을 제외한 일반 죄인들을 방면하는 전통이 조선시대 때까지도 행해져왔습니다. 하물며 일제시대때 조선총독부에서도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투사들을 특별사면으로 석방시킨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첫 사면에도 국가보안법관련 구속자를 포함한 양심수의 명단은 단 한명도 들어있지 않았습다. 이번 8.15특별사면 대상자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지는 벌써부터 분분하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비리정치인, 비리경제인 등이 주 대상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 국가보안법피해자를 포함한 양심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말뿐인 사면이 될 것이며, 또한 특별사면의 의미조차 퇴색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번 8.15특별사면 대상에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들도 포함시켜서 진정한 의미의 사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정한 화합과 포용의 정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있는 구속자는 모두 일곱 명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번에 모두 석방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국가보안법이 생긴지 60년 만에 국가보안법관련 구속자가 단 한명도 없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포함한 어느 역대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한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 될 것입니다. 비록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속자를 석방함으로써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개전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특별사면에 저희 ‘일심회’ 사건 관련자를 포함한 국가보안법관련 구속자들이 석방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2008년 8월 8일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이른바 ‘일심회’) 가족 일동

국가보안법 (이른바 ‘일심회’) 관련 구속자 명단

박경식 : 광주교도소(5051) 수감중 / 손정목 : 대구교도소(45) 수감중

이정훈 : 전주교도소(2510) 수감중 / 이진강 : 안동교도소(3010) 수감중

장민호 : 대전교도소(4009) 수감중 / 최기영 : 대전교도소(4003) 수감중

북송 비전향장기수 김익진선생님 7월 8일 타계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과 함께 신념의 고향인 북녘 조국으로 송환되셨던 김익진선생님께서 지난 7월 8일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아오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은 1930년 7월 13일 경북 영덕군 남성면 우곡리에 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1940년 뒤늦게 소학교에 입학했지만 집이 가난해서 학교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마을의 진보적인 청년들이 열고 있던 야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민주청년동맹에 가입, 활동을 하였고 1947-8년쯤에는 합법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워 입산하여 활동을 하시다가 1950년 인민군에 의해 해방되자 집으로 돌아왔으나 가족들을 빨갱이 집안이라면 온갖 탄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인민군이 후퇴하게 되자 다시 입산 소백산-태백산 일원산 등에서 유격활동을 하였고 그 뒤 황해도를 거쳐 1951년 평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평양에서 어린 나이에 유격활동한 것이 인정되어 혁명유자녀학교 특별반에 들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를 했고 다시 남포원에 전문학교에 가서 1958년까지 전문교육을 받으셨고 1958년 함경남도 신상군 인민위원회 기술부 과수담당으로 배치되어 1964년까지 일하셨습니다. 이보다 앞서 1961년 방직공으로 일하던 7살 아래 부인을 만나 결혼을 해서서 네 자녀를 두셨습니다. 1965년 1년 동안 함흥공산대학에서 수학하고 소환되어 1969년 6월에 목호쪽으로 내려왔으나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당시 다리 무릎 대퇴부 등에 큰 충상을 당하셨습니다.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등에서 30년 옥고를치루고 1999년 2.25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 양심수후원회에서 마련한 '갈현동판남의 집에 계시다가 2000년 9월 2일 북녘고향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만남의 집'에 계시는 동안 회원들에게 따뜻한 말씀을 들려주시던 모습은 이제 다시 보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주 통일되는 그 순간을 보시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고히 잠드소서-

북송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선생 17일 타계

지난 2000년 9월 북송된 비전향장기수 김인서 선생이 81세의 일기로 지난 17일 타계하셨습니다.

〈김인서선생님 약력〉

1926년 평남 덕천군 덕천면 무릉리출생
소작농인 부친을 두고 옥천 공립소학교 졸업하신 후 소작농인 아버지를 도우셨습니다.

어린 나이로 집안일을 도우는 중 일제의 민족차별을 피부로 느끼셨습니다.

취직을 하려하자 일본인에게만 허용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던 선생님은 1943년 시험을 통과해서선중앙철도 주식회사에 입사하시어 평덕선 가창역 역무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일제의 민족차별에 대한 반감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은 역무원 중 유일하게 신문을 사보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민족의식을 짙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1944년 정인화님을 맞아 결혼을 하셨습니다. 1946년 5월에 첫딸 화심님 1950년 3월 둘째딸 정심님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맞아 철도노동조합에서 일을 하시다가 1946년 5월에 입당하셨습니다. 입당 후 선생님은 봉인면 면당위원장이 되어 정치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46년 민청평남 맹산군위원회위원장을 맡고 계시다가 1949년 2월 중앙당학교에 입학 6월 졸업한 후 전쟁 전까지 민청 평남 정치문화교양부 부부장으로 생활하셨습니다.

50년 8월 선생님은 아내와 다섯 살 5개월 된 두 딸을 두고 인민군으로 전투에 투입되어 광주로 내려옵니다. 광주에서 민청활동을 하시던 선생님은 그해 9월 국군에 밀리자 빨치산이 되어 지리산에 입산하셨습니다

51년 12월 국군들의 침공작전에 생포되어 광주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52년 고등군법회의에서 전시하 비상조치령위반으로 20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 69년(60.4.19 3년 감형조치) 만기출소하셨습니다. 그 후 71년 반공법위반으로 2년을 복역, 76년 다시 반공법위반으로 5년 형을 선고받아 81년 만기출소와 동시에 사회안전법으로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한 선생님은 89년 사회안전법이 폐지되어 89년 10월 총 33년7개월의 기나긴 옥살이를 끝내고 출소하셨습니다.

출소 후 여러 도로미화원 일용노동자 채석장의 인부 등 생계를 이어가시다가 간의 이상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퇴원 후 조선대학교 구내서점에서 점원생활을 하시다가 93년 ‘빛고을탕제원’으로 거처를 옮겨 김영태 윤기남선생님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93년 무렵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가족을 만나려는 온갖 노력을 하셨지만 통일원의 방해로 하지 못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져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서울로 옮겨와 치료를 받았던 중 2000년 9월 1차송환으로 신님이 고향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통일의 그날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생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전민특위 정유미 동지 7월 26일 별세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에텐요양병원에서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공동사무국 정유미 사무총장이 낮 12시 30분경 향년46세의 나이로 운명하였습니다. 정유미동지는 어린 나이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 공부하다 우연히 1980년 5.18 광주민중항쟁 소식을 접하고 조국의 민주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청년운동을 시작으로 사회활동에 뛰어들어 2000년부터 남북해외가 공동으로 결성한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에 이어 사무총장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고인은 2006년 6월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차 방한한 뒤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해왔으며, 2007년 8월 10일 서울 용산 철도웨딩홀에서 자니 클라인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유미동지는 남북해외 전민특위 본부를 총괄적으로 연결하고 집행하는 일들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램지 클락 미국 전 국무장관을 포함한 국제진상조사단을 꾸려 남과 북에 10차례 정도 방문해 진상조사 활동을 벌였고, 한미FTA 반대투쟁을 할 때 남쪽에서 온 방미투쟁단을 맡아 일을 함께 풀어갔습니다.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2여년의 시간을 투병하다가 이날 통일세상을 보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정유미 약력>

1962년 전라도 함평 출생

1976년 시카고로 이민

1980년 일리노이 주립대-회계학

1983년 시카고 인근지역 한인 대학생 및 청년 조직인 석암회원 활동

1989년 재미한국청년 연합 “한청” 활동

1990년 시카고 청년교육문화원 원장 및 한청 시카고 지부 국제연대위원

1991년 Nkrumah Washington 교육센터[흑인청소년 교육 자립센터] 이사

1994년 동포사회를 위한 시카고 모임 국제연대 위원장

1995년 동포회의 자주연합으로 개칭 국제연대 위원장

2000년 전민특위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2005년 전민특위 공동사무국 사무총장

2007년 8월 10일 자니 클라인 씨와 결혼

2008년 7월 26일 암투병중 별세

01 -----

●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광우병기독교대책회의 주최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은 폭압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따르라 고 촉구하다. 또한 모든 연행자 석방. 어청수경찰청장 파면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다. 마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다.

● 천주교전국사제단 이틀째 비상시국미사가 청계광장에서 진행되다. 나승구신부 집전으로 김인국신부의 강론이 있었음. 강론에서는 촛불문화제의 정당성과 경찰의 과잉진압을 규탄하다. 천주교 신자와 일반시민 등 20,000여명에 김재운 안민석 등 민주당의원들과 김용철변호사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음. 봉헌성가는 '헌법1조' 성체성가는 '아침이슬'이었음. '술이푸른 술아' '광야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이어지다. 미사가 끝나고 사제단이 앞장서 승례문-남대문로-을지로입구-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촛불행진이 있었고 사제단의 단식농성도 이어지다.

02 -----

●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대학생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면 재협상! 이명박 정부 심판! 대학생 아스팔트 농활대 발대식'이 열리다. 분홍색 농활티셔츠를 맞춰 입고, 밀짚모자에 일복 차림으로 발대식에 참가한 이들은 "대학생이 앞장서서 재협상 이뤄내고 이명박 정부 심판하자", "국민이 나서서 미국과 심판하자", "7월 5일을 국민승리 선언의 날로 만들어가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민중가요인 '아스팔트 농사'를 부른다. '대학생 아스팔트 농활대'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의 기간을 '집중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선전활동을 통해 5일 집중촛불문화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알리는 활동들을 전개한다.

● 청계광장에서 강남명동, 들꽃향린교회, 공동주최로 '안전걸교우 석방을 위한 촛불기도회'가 열리다. 참가자들은 석방 촉구서에서 안전걸 윤희숙석방촉구와 촛불집회 폭력진압 중단, 모든 연행자 석방 이명박의 회개를 촉구하다. 마지막으로 안전걸조직팀장의 부인인 함정희씨가 가족인사말을 했음. 임미영 권오현 함께하다.

●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만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공안탄압! 미친소 수입강행! 국민주권 팔아먹은 이명박 정권 심판 및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7월을 총력투쟁의 달로 선포, 이명박 정권에 대해 전면적 심판투쟁 전개 △모든 투쟁 국민촛불에 복무, 고시철회와 전면재협상 쟁취 △전 조직직인! 광우병 쇠고기 '100%불매운동' 전개 △'80만 조합원조중동 끝내주기 투쟁'을 결의하다. 이석행 위원장의 대회사, 국제노동기구노동자그룹 로이 트로드만

의 연대사, 정갑득금속노조위원장의 투쟁사가 있었음 이날 결의대회에는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 10여 명과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심상정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다.

● 서울광장에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세 번째 시국미사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 56차 촛불문화제가 '쇠고기 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20,0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다. 노동자, 학생,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각 인사들은 무대에 올라 '75국민승리선언 범국민촛불대행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자고 다짐하고 경찰과 검찰의 집중적 탄압으로 인해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광우병대책회위의 어려움을 토로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 당정회의에서 '평화시위' 불법이라며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이날 남대문-명동-을지로 입구를 거쳐 다시 시청광장까지 시민들이 행진을 벌이는 동안,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음

03 -----

●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3개 단체가 소속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안전지대'를 선포하고 이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광우병 안전지대' 조성을 위한 범국민운동과 각계각층의 활동들을 촉구하다. 중소 식육업자,요식업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팔지 않겠다는 자정 결의 공개 선언과 학교병원,회사-공공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공개선언과 모든 주민들에게 소비자 감시활동을 위한 모임 조성 및 일상적 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하고 "재협상이 될 때까지 거리의 대규모 촛불행진과 함께 또 하나의 전선으로 미국산쇠고기 감시와 유통저지, 불매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다"고 밝히다.

● 범민련 남측본부회의실에서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 남측본부 2008년 정기중앙위 제3차 준비위원회'를 열다. 위임받았던 인선소위에서 낸 차기위원장 선임안을 받아들였고 2008년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심의하다.

● 광우병 촛불시위와 관련 지난 630일 부당하게 강제연행된 한국진보연대 황순원민주인권국장을 종로경찰서에 가서 면회하다. 황순원국장은 담당하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공안당국에 맞서 법정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다. 권오현 다녀오다.

●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전원석방을 위한 민가협 714회 목요집회를 열다. 이영상임의장의 여는

말 권오현 공동의장의 공안탄압규탄발언, 송헌아 실천연대 선전위원장의 출소인사 말 등이 있었음.

서울광장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와 광우병-기독교대책회의 주관으로 기독교인과 시민 등 7,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존엄, 평화집회 보장을 위한 기독교시국 기도회가 열리다 기도회에서는 공안탄압과 조중동의 왜곡 보도 헌정질서유린 등을 규탄하며 이명박정부의 회개를 촉구하다. 찬송가로 '헌법조'를 파송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다. 십자가를 든 목회자들이 앞장선 촛불행진을 1시간 하고 다시 광장으로 돌아와 58회 촛불문화제에 함께 하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일본인들로 구성된 평화예술단이 무대에 올라 촛불의 승리와 연대의 뜻을 표하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한국진보연대는 각계 인사 50여명과 대학생 이스팔트 농활대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안몰이'를 위한 한국진보연대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한총목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의 사회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지희 민주노동당 부위원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등은 발언을 통해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부당한 공안탄압 중단 및 황순원 국장의 석방 압수품의 전면 반환을 요구하다.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시대적 색깔 물이와 물리적 탄압으로는 결코 촛불을 끌 수 없다"며 어청수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다.

이북의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조국통일3대원칙 관철로 615통일사대를 빛내어나가자'는 기사에서 "조국통일3대원칙을 떠나 615통일사대의 승리적 전진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사이트는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남고위급회담이 열리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커다란 민족사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74성명의 의의를 밝힌 뒤 "주체61(1972)년 7월 4일 북남공동성명을 통해 해외에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마련하기 위해 불멸의 노고를 기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영도의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국통일3대원칙은 615통일사대인 오늘 그 정당성과 진리성, 생활력이 더욱 확증되고 있다"면서 "3대원칙이 통일의 근본원칙으로 빛을 뿌리며 우리 민족이나 아날 앞길을 밝혀주었기에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 북남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었으며 겨레의 통일애국운동이 민족자주와 평화, 단합실현의 사면적 성과들을 창조하며 시대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해올 수 있었다"고 밝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국가보안법 위

반(잠입탈출 등) 혐의로 기소된 임동규 전 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남 의장 등 3명에 대해, 일부 무죄를 판시한 대법원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다. 지난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 중 3명이 소수의견으로 "단체가 규약강령, 조직과 임원구성, 내부결의, 외부에 표명된 단체의 의사, 대외활동 등으로 추단되는 그 단체의 목적, 목표, 활동방향, 등 집단의사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 하여 그 사실만으로 그 단체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단해서는 아니되고", "범민련을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제출한 바 있다. 민변 심재환 변호사는 지난번 대법원이 '범민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은 "지금까지 법원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왔던 기본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공판 직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고법의 재선고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사법부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전면 철폐돼야 한다고 지적하다. 이규재 범남본의장과 김규철 범민련 서울연합의장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은 발언을 통해 "고법의 판시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무죄가 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냈다"며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6자회담 10.3합의리행정형에 대하여 언급하고 모든 참가국들의 의무리행이 정확하게 완결되어야 10.3합의리행이 마무리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다음 단계 문제토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총련기관지 <조선신문>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담화문>에서는 6자회담 10.3합의리행으로 핵시설의 무력화는 현재 80% 이상 진척되었으며 우리는 정확하고 완전한 핵신고서를 제출할데 대한 합의사항도 리행하였다. 특히 시험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무력화를 초월하여 랭각탑을 이에 폭파하버리는 조치까지 취하였다.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도 응당 자기 의무를 신의있게 리행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에 합세하여야 할 것이다. 5자의 경제보상의무도 현재 40%밖에 리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우리는 핵신고서를 검증하는데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행동 대 행동>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전지하고있다고 지적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심리로 윤기진법정학련 남측본부의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 공판을 열고 편지수첩 등 추가 증거채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사이 공방이 진행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다시 하고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하다.

서울광장에서 불교계 주최로 국민주권수호 권력참회 시국 법회가 열린다. 800여스님을 비롯한 신도 시민 등 30,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여중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오도록 못한 나라로 만든 허물과 참회하는 108배를 올린다. 시국법회 공동추진위원장 수경스님의 발언, 집행위원장 성묵스님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결의문에서는 우리로 더 이상 공권력과 뺨뺨어진 일부 언론에 의해 촛불의 숭고한 의지가 훼손되는 것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어 조계종 교육위원장인 청화스님의 시국 법어(후원회소식201호 보심), 전국사제단 전종훈 신부님의 연대사가 있었음. 마치고 촛불 소녀 등과 금강역사 상을 앞장세워 시청-승례문 을지로 입구-시청광장으로 돌아오는 묵언행진을 하고 수경스님과 20여 스님은 광장에 천막을 치고 단식에 들어가다.

서울광장과 태평로 일대에 수십만 촛불대열이 함께 한 가운데 대한문 앞에 사대종단 사대정당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비폭력평화행진단이 앞자리에 함께하고 서울역에서 사전집회를 가진 민주노총 공공연맹 조합원 10,000여명이 합류하면서 '7.5 국민승리선언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권혜효, 최광기 씨의 우렁찬 목소리로 시작된 50여만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문화제에는 두 달이 넘는 시간동안 '여중생 촛불은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전 국민으로 퍼져나가 비폭력.평화'를 앞세워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다. '7.5 국민승리 선언문'에서 시민들은 경찰의 폭력진압, 원천봉쇄, 전원연행, 압수색, 배후색출, 지도부 검거 앞에서도 비폭력적으로 이어진 촛불문화제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평가한다. 체포영장이 떨어져 수배중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등 4명도 오랫동안 무대 위로 올라 시민들을 만나 울먹이는 목소리로 감동적인 인사를 건네다. 광화문 네거리를 막고 있는 차벽 앞에서는 물대포와 밧줄 대신 참가자들과 함께 하는 공연이 이어진다. 11시 10분 태평로 거리를 지키고 있는 3만여 촛불시민 앞에 가수안치환 씨가 등장해 김남주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자유'를 부른다. 창동태권도체육관 관원들의 촛불시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이긴다는 내용을 담은 태권도 퍼포먼스는 선보이다. 한밤의 문화제에는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대 위로 올라 민주노총을 지지해 준 시민들에 사의를 표하고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80만 조합원 모두가 연행되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한다. 시민들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문화제 뿐만 아니라 태평로와 시청광장 곳곳에서 난타공연과 풍물놀이 등을 즐기며 밤을 지새고 있다. 문화제는 노래공장, 박준, 노찾사, 실버라이닝, 연영석, 박성환, 꽃다지 등 가수들의 노래공연과 문예패 '들꽃', '선언' 등의 문예공연으로 이어지며, 오전 2시까지 마무리되다. 국민대책회의는 청와대가 거절한 국민 5대 요구서한을 홈페이지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국민 요구사항'을

발표하다. 소수영 안병길 김호현 모성용 김혜순 소수영 이용준 김길자 김재선 이승미 김래곤 신현익 모지희 신현부 임미영 권오현 등 함께 하다.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독교', '한국사회당', '진보신당'의 천막을 경찰병력을 투입해 강제로 철거하다. 또 철거 이후 경찰은 15개 중대(1,300명) 병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차량으로 서울시청 광장 주변을 완전히 봉쇄하여 촛불진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다. 오후 7시 20분, '광우병 기독교대책회의' 소속의 목회자들은 서울시청 광장에 남아있는 3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60차 촛불문화제'를 열다. 목회자들이 주축이 된 '2차 촛불기도회'는 작은 엠블를 임시로 갖추고 목회자들의 규탄발언, 기도문 낭송과 시민 자유발언의 순서로 진행됐다. 목회자들이 광화문까지 평화행진이 경찰에 가로막히자 '광장 안을 7바퀴 돌자'는 목회자들의 제안에 경로를 변경, '평화잡희 보장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의 강경대응에 항의하다. 경찰의 원천봉쇄에 광장으로 들어오지 못한 500여 명의 시민들은 행진이 시작되자 경찰 통제선 밖에서 촛불을 들어 행진 대열을 응원하다.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명박이 수뇌회담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북남관계 악화의 책임을 모면하고 안팎으로 고립된 처지에서 벗어나며 여론을 오도해보려는 것 외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이명박은 수뇌회담을 말하기 전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북남선언들을 뒤집는 것은 초보적인 도덕도 없는 무례한 행위이고 온 민족의 지향에 대한 탄핵한 유린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그러한 상대와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리명박은 수뇌회담을 말하기 전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다.

조계사 경내에서 진보연대 집행일보 간담회에 이어 광우병대책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과 17일에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열고 그 밖의 날들은 각 부문과 단체추진관으로 문화제를 열기로 하다. 이날 밤 촛불문화제는 경찰의 서울광장 등 원천봉쇄 속에 기독교-대책회의 주관으로 300여 명이 함께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다.

지난 5일 밤 조계사에 들어와 있는 광우병 대책회의 집행부 간부들을 격려 방문하다 이들은 공안당국의 체포영장발부로 조계사 법당 뒤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있으며 조계

사에서 보호하고 있음

● 고 김일성주석 서거 8주기를 맞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간부들과 함께 김주석시인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방송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격식 군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군총정치국 제1부국장과 함께 김일성동지께 경의를 표했다고 하다. 또한 노동당과 내각의 정. 중앙기관 간부들 항일혁명투사들 군장병들 이북주제 외교관 및 무관들 방북중인 중국베이징 외교인원북무국대표단 국제 태권도연맹수석부총재등도 참배했다고 하다. 또한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는 최고인민회의의 김영남상임위원장과 양형섭부위원장 김영일 내각총리 김기남노동당비서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만수대에술단을 비롯한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이 출현한 회고음악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소개하다.

08 ● 통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는 3만 84명이며 이는 2004년 12월 255명으로 출발한지 3년여 만이라고 밝히다. 기업별로는 아파트형 공장 입주 30개사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4,000여명, 삼덕스타필드 근로자 2,200여명, 평안 1,300여명 등이며 기업당 평균 근무 인원은 418명이다. 남측 근로자는 약 1,300여명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액 누계는 3억 7,38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1억 108만 달러에 비해 147%가 늘었다. 입주기업 생산 누계는 2008년 3월 기준으로 3억 달러를 달성했다.

● 친강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10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공식발표하다.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는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제2단계 이행을 위한 조치와 철차에 대해 논의하고 각국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교환을 하며 회의기간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와 경제, 에너지 실무그룹회의가 동시 개최된다'고 하다. 한편 이북수석대표인 김계관외무성부장과 미국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성차관보는 베이징 주제 이북대사관에서 회담의제 등을 토의했다고 보도하다.

● 서울 영등포대영빌딩 1층 민노총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지도부 고소고발은 공안탄압이며, 파업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다. 지난 3일, 김.경은 2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서석행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3명을 비롯해 전국급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 이하 급속조) 지도부 및 간부 34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석행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정부의 민주노총 지도부 탄압은 민주노총 80만 조합원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고 밝히며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에 총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하다.

09 ● 이북의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은 <량면술책은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을 통해 "미국이 남조선피괴공과의 군사적결탁관계를 더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대남 무기 판매 계획을 비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외신보도를 인용 "미국방성은 남조선피괴공군에 납입하게 되어있는 <F-15K> 전투기들에 장비하게 될 약 2억US\$분의 무기탄약을 판매하기로 공식 발표하였다"며 "이것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지배전략에 남조선을 깊숙이 끌어들이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미국이 대조선압살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전쟁장비들까지 남조선피괴공부호전세력들의 손에 쥐여주며 동족살륙전으로 부추기는데 대해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여의도 MBC 본관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주관으로 '촛불아 모여라 PD수첩 지키자'란 주제로 촛불문화제가 열리다. 1,5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이석행 민주노총위원장 등 PD수첩수사 등 민영하음도 언론자유침해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앞세운 이명박정부의 방송언론 장악기도를 규탄하다. 방송인 김미희씨 김환태 MBC아나운서 광주MBC 신일씨구학당 남부 진행자 등이 MBC KBS 지키자는 내용의 결의발언을 하다.

● 경기도파주시 지역무건리사격장이 있는 (지금은 폐교되어 도자가나라에서 도자기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직전초등학교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지지를 위한 공동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대표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지다. 무건리훈련장은 1980년 8월 무건리일대 350만평을 대대종합훈련장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1986년 3월 550만평 규모의 연대전투단훈련장으로 확장되었으며 1990.8월 제병협동훈련장으로 다시 확장되다. 1996년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비암리훈련장 노야산훈련을 하나로 연결하는 권역화훈련장(총1050만평)계획을 수립했고 무건리훈련장은 1997년 10월 미국의 요청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PA) 합동위원회 시설 및 구역분과위 건의안에 의해 연간 13주(91일)를 미군이사용하기로 하다. 이후 미군이 공동훈련장으로 사용해오다가 2004년 연합도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에게 제공된 37개의 한미공동훈련장의 하나로 재차 주한미군에게 제공되다. 참가자들은 오늘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2차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훈련장확장에정지를 돌리다. 평통사 배종렬상임대표, 범남본 이규재의장, 통일광장 임방규공동대표, 양심

수후원회 권오현회장, 경기북부지역민주노동당, 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하다.

- 민주노총회의실에서 미군범죄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남측본부 2008년 정기운영위원회(총회)가 열린다. 이규재위원장의 인사말 성원보고에 이어 2007년 하반기 -2008년 상반기 사업보고 2008년 상반기결산안 심의와 승인이 있었고 김규철감사의 감사보고를 승인한다. 임원선출에서는 총회준비위원으로 한상렬진보연대 대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감사에는 김규철 권오현이 유임된다. 김영승조사위원장 한홍묵집행위원장도 인준된다. 이어 한상렬위원장 사회로 2008년 하반기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다.

- 광화문 우체국 6층 북한자료센터에서 7월 장기수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이북영화보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운 김영승 송세영 이순영 김영식 박희성 박정숙 김선분 조병진 이계선선생님과 김래곤임선영 소수영 한찬욱 임미영 함께 했습니다.

10 -----

- ‘촛불을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모임’ 주최로 서울 종로구보신각 앞에서 열린 64차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500여명의 시민들은 30분여 동안의 집회를 마치고 인도를 통해 행진을 하다. 경찰이 보신각 주변에 100여 명의 병력을 배치해, 시민들의 가두행진을 원천봉쇄하여 500여 시민들은 인도를 통해 종로 2가를 거쳐 삼일로 방향으로 이동하고, 보신각에서부터 차도로 행진대열을 따라가며 대오를 유지하던 경찰들은 뛰어난 시민들을 제지하기 위해 행진대열을 인도로 밀어붙이기 시작하였고, 시민들의 반발로 경찰과 몸싸움이 일다. 갓발을 올 내세운 시민들이 차도로 뛰어나가자 뒤따르던 이에 경찰들이 을지로 2가까지 시민들을 추격하여 목을 조르거나 넘어진 사람을 발로 밟는 등 ‘과잉진압’의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17살 김 아무개 양과 22살 강 아무개 씨가 다쳐 구급차에 실려 동대문 국립의료원으로 후송된다. 행진 30여 분 만에 경찰은 을지로 입구역 앞에 방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경찰을 투입, 행진대열을 인도로 밀어붙이고 양쪽을 포위하고 200여 경찰병력이 인도로 올라와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100여 명의 시민들을 감금하자 지나가는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다. 김원준 남대문 경찰서장은 해산방송을 통해 사법처리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해산을 종용하고, 경찰 무전기에서는 “갓발 든 놈, 촛불 든 놈, 유인물 든 놈 모두 체포해”라는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린다. 오후 9시 40분께 차도에 있던 경찰병력들이 인도로 투입해 시민 6명이 연행하여 용산경찰서로 이송하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오후 10시 20분께 명동성당으로 자리를 옮겨 1시간여 동안 정리집회를 갖고 자진 해산하다.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국가인권위 앞에서 ‘경찰폭력과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에 관한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다. 피해 참가자들은 지난 628일 일어난 대규모 경찰폭력과 65건의 인권침해사안과 서울시청광장을 원천봉쇄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다.

- 6자회담수석대표들이 이날 오후 베이징다오위타이에서 열린다. 회의는 ○핵신고검증 및 모니터링 메카니즘 ○대북경제에너지지원 마무리 ○6자외교장관회담개최와 동북아 평화화안전구축문제 ○비핵화 3단계 협상의 기본적인 구조와 방향 등을 의제로 확정하다.

11 -----

- 서울 종로구 보신각앞에서 22개 단체로 구성된 ‘촛불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인 공동행동’은 30여 명의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탄압 중단! 표현의 자유 보장! 문화예술인 시국선언’을 열다.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촛불이 선물한 직접 민주주의의 회열과 감동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촛불과 함께 헌법 조가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그림이 되고, 춤이 되고, 영화가 되는 민주주의의 현장에서, 새로 쓰는 민주주의의 역사에 문화예술인들은 언제나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다”고 밝히다. 이어 ‘광우병을 넘어, 한미FTA를 넘어, 대운하를 넘어, 민영화를 넘어, 조.중.동을 넘어 촛불은 거대한 민주주의의 향기로 대한민국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며 “지배 권력의 군대, 경찰이 아무리 잔혹할지라도 민주주의를 향한 시대정신과 열정을 폭력의 어둠 속에 가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하다.

-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회의실에서 광우병-대책회의 제4차 전국대표자회의를 열다. 장장 5시간에 걸친 토의 끝에 ○촛불양심수(구속자, 수배자)지지 ○어청수결찰청장 해임서명운동 ○공안탄압중단과 집회 결사자유수호를 위한 캠페인 ‘촛불은 정당하다’를 벌이기로 하다. 또한 7.12 7.17 일 집중촛불문화제를 열고 대표자회의의 활동목표 의제 확정 집중촛불 등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 금강산을 방문 중이던 남쪽 관광객 박광자(53-여)씨가 북쪽 경계지역에 들어갔다가 피격되어 사망했다고 김호년 통일부대변인이 긴급브리핑에서 밝히다. 브리핑에 따르면 북측이 금강산관광사업자인 현대이산에 박씨의 사망사실을 통보해왔다.며 ‘박씨는 이른 새벽 4시 30분경부터 금강산 특구대 해수욕장 경계선을 넘어 북쪽 군사경계지역에 깊숙이 들어와 초병으로부터 정지명령을 받았으나 듣지 않고 도주하다 5시쯤에 발포하여 사망한 것으로 밝히다. 김호년대

변인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할 것이라고 한다.

● 베이징에서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가 이날 폐막식을 갖고 언론발표문을 내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9.19공동성명에 따라 6자회담 틀안에 corea반도 비핵화 검증체제를 수립

○ 6자의 전문가로 구성-비핵화 실무그룹에 책임진다.

○ 검증체제의 검증조치는 시설방문, 문서검조, 기술인력인 터뷰 및 6자가 합의한 기타방법

○ 필요시 국제원자력기구의 자문과 지원을 받는데 환영

○ 구체적 계획과 이행은 전원합의에 따라 corea반도 비핵화 실무그룹에 의해 결정

2. 6자는 6자회담 틀내에서 감시체제들을 수립하기로 합의한다.

○ 감시체제는 6자수석대표로 구성

○ 그 임무는 비확산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조선)에 대한 경제에너지지원을 포함한 6자회담 틀내에서 각자공약준수 이행할 것을 보장하는 것

○ 감시체제는 6자에 의해 유효하다고 인정된 방식으로 책임수행

○ 6자수석대표들은 적절한 당국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3. 참가자들은 영변핵시설 봉쇄화와 함께 경제에너지지원을 위한 시간계획을 작성한다.

○ 영변핵시설봉쇄화와 여타 참가국들에 대한 조선에 대한 중유 및 비중유잔여분지원은 병행하여 완전하게 이행한다.

○ 모든 참가국들은 2008 10월말까지 중유 및 비중유지원 만료에 노력한다.

○ 미국러시아는 2008년 8월말까지 잔여분지원을 해야 한다.

○ 중국과 한국은 2008년 8월말까지 잔여분지원을 해야 한다.

○ 일본은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조선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에 참여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4. 참가국들은 동북아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에 따르기로 합의

5.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간에 베이징에서 6자의 외교장관회의 개최 재확인

6.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3단계조치에 대해 유보적 의견교환을 가짐-6자회담 과정을 포괄적 방법으로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한다.

●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과 '촛불을 지키는 문화예술인' 이 공동으로 주최한 65차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촛불문화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1부 순서를 진행

했고, 이어 2부에는 '촛불을 지키는 문화예술인' 이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인다. 무대에 오른 10대 청소년 신 아무개 양(19)은 "청소년이 맨 처음 시작했는데 먼저 빠지면 안 된다"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최영준 광주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도 "내일 시청을 탈환하기 위해 가족, 친구 등 많은 분들을 불러달라"고 호소한다. '촛불수배자' 들도 전화를 통해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전한다. 가수 손병휘씨의 힘찬 노래로 2부 문화공연의 막이 올라옴것때 '선언', 노래팀 '이준마' 등이 차례대로 무대에 올라 시민들의 열띤 호응이 이어지고, 가수 지민주씨의 공연을 끝으로 65차 촛불문화제가 막이 내린다.

12 -----

● 서울 시청 서울광장에서 광주병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66차 '촛불문화제' 가 열린다. 경찰은 시청 일대에 100여 대의 경찰차량과 수천 명의 병력을 배치, 이들에 걸쳐 서울시청 광장을 원천봉쇄하고 지하철 출구조차 막고 경복궁역은 '무정차 상태' 가 1시간여 동안 이어지는 등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전면 통제한다. 5,000여명의 참가자들은 국가안전위원회 앞 도로에 모여 을지로방면으로 거리행진을 시작하고 청계광장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던 5,000여 명의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행진대열은 1만여명으로 불어나다. 행진대열은 "이명박은 물러가라", "비가 와도 계속 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폭우속 '촛불행진' 을 강행하다.

행진대열은 서울광장 앞을 출발해 안국역 사거리-종로2가 사거리를 거쳐 동대문을 '반환점' 으로 다시 을지로 일대로 방향을 틀었고, 시청 대한문 앞에 도착할때까지 4시간여 동안 '철야 강행군' 을 벌인다. 6명의 '촛불수배자' 들이 농성하고 있는 조계사 앞에서 행진을 멈추자 일부 시민들은 사회자에게 "행진을 계속 하자"고 거세게 항의하다. 오후 11시 30분, 4시간여 폭우속 행진을 마치고 시청으로 집결한 3,000여 시민들은 덕수궁 대한문 앞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경찰과 대치하다가 자진 해산하다. 모성용 김은 송창학 김혜순 신현부 모지희 이승미 김재선 등 여러 회원들이 함께하다.

● 이북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관광객이 금강산에 왔다가 7월 11일 새벽 4시 50분경 우리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관광객이 관광지구역을 벗어나 비법적으로 울타리밖 우리측 군사통제구역에 까지 들어온데서 그 원인이 있다. 신세벽에 명백히 표시된 경계울타리를 벗어나 통제구역으로 들어와 우리 군인이서라고 했는데도 듣지않고 계속 도망쳤기 때문에 사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남쪽이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사고발생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함에도 오히려 남측당국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중단토록 한 것은 우리에게 대한 도전이고 참을 수 없

는모독으로 남측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세울 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사고경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측 지역에 들어오겠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13 -----

● 이북의 <로동신문>은 13일자 개인 필명의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란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제18대 국회개원식 시정연설에서 한 대북 대화제의를 대해 이같이 호평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이명박 역도가 '시정연설'에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그것을 과거의 북남합의들과 뒤섞어 어물쩍하여 넘겨버린 것"이라고 밝히, 이 대통령이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나열한 것에 대해 반박하다. 또한 "온 민족이 전폭적으로 지지한 통일대강이고 실천강령인 북남선언들을 부정하면서 '실천의 시대'를 떠드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말도 안 되는 꾀변"이라면서 "이명박은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는 서툰 말장난을 그만두고 온 민족 앞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입장부터 명백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다.

14 -----

● 서울 영등포구 대영빌딩 1층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등 3개 법률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발상에 오를 광우병 쇠고기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버릴 끝으로 내물 한미FTA에 반대하는 것은 총연합단체로서의 의무이고 책임이다"면서 "이번 총파업은 지극히 정당하고 우리 법률단체들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히다. 법률단체들은 이미 파업도 하기전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나서고 있다며 노동조합과 간부들에 대한 표적 탄압의 중단을 엄중히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대법원 판례조차도 조정전치주의와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 판단에서 행정지도가 내려진 것과 무관하게 조정절차는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72 총파업"이 조정절차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률전문가들은 파업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는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확정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72 총파업"의 경우 입단협 투쟁과 연동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집중 파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띌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다. 향후 법률단체들은 정부의 출석요구서 제출 등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계획이며,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언론기고 활동, 성명서 발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민주노총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벌인다.

● 미군의 초대형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하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보도자료에서 해상특수작전부대훈련 참가차 입항했다고 밝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는 승무원들의 휴식과 문화친선교류 등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다.

● 일본정부가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명기하는 침략아욕을 다시 드러내다. 일본문부과학성은 해설서에서 우리나라(일본)와 한국사이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를 둘러싸고 주장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토 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적시하다. 이에 유엔환외교통상부장관은 이날 시게이에 노시노리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고 정치권도 여야의원 264명 이름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일본총리에게 보내는 등 강력대응 방침을 밝히다. 민주노동당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독도_일본령' 표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15 -----

●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진보연대와 독도수호대 등 39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명기는 일본의 불행입과 동시에 한국인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강력히 규탄하다. 참가자들은 독도는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일본정부의 유일하고 현명한 선택은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엄중 경고하다. 아울러 "죽도의 날 폐지, 한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독도기점 인정은 물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문제를 삭제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독도문제에 안일한 정부의 태도를 '무대응'이라고 규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와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다. 이보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연합회도 규탄기자회견을 가졌고 오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독도 지키기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16 -----

● 명동향린교회에서 향린교회 강정구교수공동대책위원회 매향리주민대책위 무건리후련장주민대책위 사월혁명회 평통사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 후원으로 "반갑다 평화! 잘가라 미군!"이란 부제가 달린 문규현신부의 평화강연회가 열리다. 강연회에서 문규현신부는 1989년 외국유학중에 입수경 전대협대표의 평양축전참가에 대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평양으로 달려가 판문점 분계선을 넘어온 이야기로부터 나라가 갈라졌지만

남북 모두 조국이기엔 북부조국 남부조국으로 호칭하게 된 이야기, 그래서 빨갱이신부로 공격당한 이야기, 이 땅에 외국군대가 있는 한 평화와 통일은 불가능하다며 미군없는 평화협정을 해야한다는 이야기, 반세기 넘게 적대관계 속에 있는 이북과 미국사이 지난 뉴욕콜하모닉이 평양공연과 특히 아리랑연주영상을 보여주는 등 문규현신부의 신념에 찬 평화운동가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음.

●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제822차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를 열고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사과와 법적배상 전범국가로서의 법적책임이행을 촉구하다. 이보다 앞서 민주노총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군국주의 부활 '영토주권도발 뉴라이트친일교과서 신사대외교'라고 쓴 상자를 짓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일본대사관에 토마토와 썩은 달걀을 던지기도 하다.

● 제일(조선신보)은 이번 6자회담(7.10~12일)에서 '행동대 행동'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일본의 국제적 위상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신문은 이번 6자회담에서 나타난 일본의 행태와 모습을 세 가지로 조목조목 밝히다. 먼저, 신문은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이키 이키다카 아시아태양주국장이 기자들에게 일본측의 대북 '지원불참' 입장을 설명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를 이해한다고 했다"고 말했는데 사실 각측은 "이해"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폭로하다. 신문은 "6자회담에서 채택된 어느 공동문건에도 '납치'라는 단어는 없다"고 지적하고는 "따라서 일본대표인 외무성 관료들이 회담장에 나가서 '행동대 행동'론을 전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확인하다. 둘째, 신문은 일본의 대북 에너지지원이 그 무슨 '선심'이거나 또는 '납치문제'와 결부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꾀변술은 6자회담에서 이루어진 공동인식을 교묘히 부정한 것"이라고 꼬집고는 "조선반도비핵화는 모든 참가국들에 평화와 안전의 혜택을 주게 될 것이므로 따라서 6자가 그 실현을 위하여 다같이 의무를 지니고 행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 다국간 외교에서 확인된 기본원칙"이라고 못박다. 셋째, 신문은 일본이 "국제사회의 현실은 일본의 주장이 6자회담의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환상을 허물었다"고 폭로했다고 전하다.

17-----

● 서울시청 광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제헌 60주년을 맞아 '국민주권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수호, 헌법실천의 관점에 충실히 서서, 의연하고 평화적으로 반민주정권에 맞설 것이며,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선언하다. 전농 한도 의장, 전민련

김홍현의장, 전교조 정치권위원회장, 시국법회 추진위원장 지판스님, 김정명신 문화연대 공동대표, 광주병기독교대학의 김정호목사, 강민욱 21세기 현대연의장 등 각 단체를 대표하는 50여명의 인사는 이날 오후 5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광장과 거리를 찬란히 밝힌 수백만의 촛불이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서, 헌법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서 나아가는 지극히 온당하고, 한없이 거룩한것임을 거듭 선언한다"며 "촛불을 거역하고 촛불을 탄압하는 정부의 모든 행위는 헌법위반, 헌법파괴임을 고발한다"고 밝히다.

●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7일 대학재학 때 학생운동전력을 문제삼아 현직 장교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활동 및 이적표현물소지 등 혐의로 연행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일과 관련 특전사장교로 있는 김영중중위 가족과 광주병공안탄압 중단 김영중 중위 모략수사 중단을 위한 경희대대책위원회는 서울광장에서 '공안탄압규탄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수입반대했다고 압수수색과 연행조사하는 신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기무사령부는 김중위가 10여년 전부터 사용해온 이메일과 <철학에세이>X다시 쓰는 한국현대사X전태일평전 등 서적 30여권을 압수해갔음. 김중위는 대학 재학 때 2004년 동아리 연합회 회장을 맡은 바 있고 2006년 중위로 임관 3년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중임.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제716번째 목요일집회가 열리다. 이날은 촛불양심수(수배자·구속자)를 지키기 위해 이영 민가협 상임의장의 여는 말에 이어 촛불문화제에서 사회를 맡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윤희숙씨의 사진을 가슴에안은 이승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은 "윤희숙부의 장은 일반 시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참가했고, 참여했던 시민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데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고 침통한 심정을 전하다.

● 서울 청계광장에서 71번째 촛불문화제, '7.17 국민주권 실천 촛불대행진'가 열리다. 이날 무대에 오른 민변 김중웅변호사는 "두 달 넘게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 정부가 가장 위험적인 정부"라고 꼬집다.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많은 시민들과 중고등학생들,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15,000여명이 함께 하다. 시민자유발언에 나선 김이무개(30, 주부)씨는 730 서울교육감 선거 동참을 호소하며 "좋은 교육감을 뽑는 것이 촛불소녀에게 빛을 갖는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촛불행사의 마지막은 촛불소녀들의 '이명박 심판 퍼포먼스'로 마무리되다. 오후 9시 30분 경 행진을 시작하다. 경찰의 철통같은 봉쇄로 서울시청광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은 보신각 조계사 앞 안국로터리 일본대사관과 옛 한국일보사 앞 경찰차벽 앞

까지 진행한다. 특히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독도는 우리땅’을 외치며 규탄집회를 열기도 하다. 11시 가까이 경찰은 경고방송없이 물대포를 쏘며 폭력진압에 나서다. 대열은 안국로터리로 물러나 종로경찰서 앞에서는 구속지석방을 외치다. 자정에 이르러 폭력진압에 밀려 인사동 종로 보신각으로 이동 연좌농성을 하다 두시쯤 자진해산하다. 모성용 송창학 김래곤 임미영 모지희 이승이 이재필 장재영 변의숙 송지영 권오현 등 함께하다.

18 -----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민변은 80여 명의 청구인단과 소속 변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고시위헌 헌법소원 청구인단 공개 설명회’를 열다. 좌세준 변호사의 설명으로 본 쇠고기 수입 고시는 △공권력의 행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보충성 등의 모든 적법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밝히면서 “충분하게 다섯 가지 관문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제엠네스티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서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경찰이 정부의 무역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하던 평화로운 시위자들을 향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밝히다. 국제엠네스티는 조사결과에서 “몇몇 경우 경찰은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으며, 물대포나 소화기 같은 비살상군중통제장치를 남용했고, 경찰은 시위대와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까지 자의적으로 연행했다”고 하다. 또 “일부 구금자들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에 처했으며, 일부는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정부는 아직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19 -----

이북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침략적인 대조선 전략과 <림팩> 합동군사연습’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기사를 실어 “<림팩> 합동군사연습은 아시아태평양 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고 규탄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이 신문은 “당면하여 <림팩>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모험적인 전쟁연습들이 중지되어야 한다”며 “<림팩>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해상봉쇄를 노린 무분별한 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다. 또한 신문은 “<림팩> 합동군사연습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해상 및 공중선제타격 작전을 완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같은 작전은 현 시기 미국이 이라크 전쟁 등 ‘해외침략전쟁’의 기본방식이 되고있다고 지적하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우병대책위의 주최 73번째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이보다 앞서 전대협 안티이명박 아고라 등 네터즌은 탑골공원 앞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행진에 들어가 청계광장 촛불문화제 참가자들과 합류 종로3가 등에서 10,000여명이 연좌시위를 벌이다. 종로3가-을지로 3가-다시 종로2가로 촛불행진을 하는 동안 대열은 15,000여명으로 늘어나 ‘독재타도’ ‘명박퇴진’ ‘해체 한나라당’ 등 구호를 외치며 경찰에 막히면 우회하며 을지로 가-롯데호텔앞-남대문방향-태평로일대를 점령, 대로에서 시위를 계속하다. 일부 대열은 YIN앞에서 구본홍사장 선임을 규탄하고 서울역을 돌아 중앙일보사 앞에 이르러 폐간을 외쳤고 경찰청 앞에서는 어청수청장퇴진을 소리높인다. 다시 서대문-경향신문 앞까지 진출-새벽5시엔 서울역에 집결 정리집회를 열고 자진해산하다. 장장 10시간이 넘게 시위를 하면서 11명이 연행되다.

20 -----

한마음 통일산악회 7월산행이 있었음.<산행기보심>

2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광만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윤기진 조국통일법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하다. 검찰은 수배생활동안 이적행위를 하고 범청학련 의장을 맡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하다. 윤기진 의장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9년간 수배생활을 해 오다 지난 2월 27일 구속됐다. 윤 의장은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 이적단체 가입, 회합통신,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 등의 혐의를 받고, 8차례에 걸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이북이 대한민국의 준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범청학련의 경우 남과 북 해외 3자가 공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조직으로써 어느 단체가 다른 단체의 상부로 볼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하다. 윤기진의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순수한 통일운동에 특수목적 수행이니, 지령수수니 하는 딱지를 붙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99년 황아무개 학생이 북에서 참여했던 8.15 통일축전과 통일축군, 농구대회, 북녘 유적 답사는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지난 8년간 노동자·농민·학생·여성·문인·정치인·종교인들이 수없이 벌여온 통일행사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의장 석방대책위 주최로 ‘범청학련 윤기진의장 실행구형 국가보안법편의제공 적용 범청학련 남측본부후원회 탄압 검찰규탄기자회견’을 열다. 탄압사례보고에 이어 이규제범민련남측본부의장의 규탄발언, 권오현 양심수후원회회장의 검찰에 보내

는 항의서한 낭독, 윤기진의장의 부인인 민주노동당 황선 자주통일위원장의 가족인사말이 있었음. 마치고 항의서한 검찰청에 접수시키다.

- 서울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오전 11시 30분 1시간 동안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다. '미국 퍼주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든 공동길 평통사 자주 평화팀 간사는 이번 협상으로 쇠고기 협상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대미 퍼주기가 명백해 질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에 앞서 평통사는 논평을 통해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이은 제2의 대미조공'이라고 규정하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22 -----

- 후원회소식201호 교정작업이 총무로 창미디어에서 있었음. 임미영 권오현

- 광화문 열린 마당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획책에 강력대항하여 '독도수호'의지를 담은 단발식을 가지다. 전국각지에서 200여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순국선열 홀린 피로독도주권사수하라'며 단발식기자회견을 마치고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까지 행진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 3창하고 김국주교문과 최창규사무총장이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다.

23 -----

- 총무로 풍산본사가 들어있는 극동빌딩 앞에서 풍산해고자협의회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 주최로 '(주)풍산의복작권고 거부에 대한 규탄결의대회'를 열다. 권영국변호사 사회로 김영일 풍산동래해고노동자의 경과보고, 권오현 계승연대 전이사장의 대화사, 정종길풍산해고자협의회 수석공동대표 허영구 민주노동당부위원장 김성희 한국비정규센터소장 외 여러분의 연대사, 민중가수 기민주씨의 노래 공연등이 있었음. 풍산해고노동자들은 1989~91년 사이 민주노조건설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해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신청을 하여 2008년 328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인정과 풍산에 복직권고를 했으나 아직까지 풍산은 수용의사를 내놓지 않고 있음.

- 세종호텔에서 열린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 통일포럼 강연에서 이종석 전통일부장관은 금강산 관광개 박왕자씨 피격사건과 관련 '개성관광중단은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다. 또한 금강산사건을 국제화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발전해온 것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사장 최병모)는 소속 회원과 시민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주제로 '한반도 정전협정 55주년 기념포럼'을 열다.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소장의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 군사동맹의 폐기 촉구, 남북 군사체제의 근본적 변환 등을 제시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서주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 주한미군 철수 선행과 미군전면철수에 반대하는 기조로 열린 토론을 벌이다.

-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개 고(□) 박왕자씨 총격 사망사건을 둘러싼 '상황'을 이유로 백두산. 평양방문을 추진 중인 민간단체들과 민주노동당 측에 사실상 방북승인 불허방침을 사전통보해오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23일 현재 통일부의 사전만류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방북신청사례는 모두 4건이다. 즉 전교조 '2008년 남북교육자 상봉모임' 100명의 대표단(8월 10-14일), 6.15청학본부 120명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관철을 위한 청년학생 통일답사단'(8월 14-1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100명의 노동자대표단(8월 18-21일), 60명 규모의 민주노동당 방북대표단(8월 18-22일) 등이다.

- 2년6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전철연의 변의성님이출소 인사차 만남이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감옥에서 소내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서 여러 번 폭군 건 단식을 결행했으며 양심수후원회에 긴 편지를 보내와 자신과 동지들과 회원들의 사회변혁의 몫을 항상 챙겨 주었습니다. 출소 후에도 강건한 투쟁 이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해 12월 출소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도 부인 임정옥회원과 아들 대무와 같이 와 정답을 나누고 음식 나누었습니다. 박희성 김영식 문상봉선생님 조순덕어머니 유수남 변슬기 아영 김성한 임정옥 김대무 김호현 권오현 소수영 임미영 함께했습니다.

24 -----

-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건물 앞에서 한국진보연대는 소속 회원들과 아스팔트 대학생 농활대 대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요에 이어 주한미군 주둔비용 증액을 부당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근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미국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약(소FA)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민의 혈세를 미군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행위라고 비난하다.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황선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도 발언을 통해 SOFA협정의 주한미군비용전액분담을 미국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차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근본적인 부담성을 밝히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다.

● 인민군중군기자로 지리산등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다 34년의 옥고를 치르고 1993년 3월 19일 북녘조국으로 송환되었던 비전향장기수 리인모선생의 반신동상이 평양의 통일거리에 세워졌다고 제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인용 통일뉴스가 보도하다. 리인모선생은 지난해 6월 16일 서거해 인민장으로 장례를 치루었었음. <조선신보>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불굴의통일애국투사이며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씨의 반신동상이 평양의 통일거리에 건립되었다”며 “제막식이 23일 현지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하다. 신문은 23일 제막식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기남 비서 등과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비전향장기수들, 리인모씨의 가족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으며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신화환이 반신동상에 진열되었다고 전하다. 또한 양형섭 부위원장이 제막사에서 “남녘의 감옥에서 숨쉬는 화석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던 리인모씨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14년간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린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며 “그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리인모씨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모범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보도했다.

● 후원회소식발송작업이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문상봉 박희성 김영식선생님 조순덕어머니 소수영 임선영 모성용 임미영 함께

● 서울중앙지법형사 7단독 박대원판사 심리로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집회를 주도했다며 집시법 공무집행 방해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진걸대책회의 조직담장에 대한 1차공판이 열리다. 검찰의 기소요지 발언에 이어 변호인과 안진걸조직담장의 반박모두발언이 있었음. 변호인은 공무집행 방해혐의에 대해 부당하게 강제연행되면서 발버둥친 것이 공무집행방해나며 다양한 사람 자발적 참여 자유발언과 공연 퍼포먼스 등 촛불문화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서도 통금시대의 낡은 잣대로 집시법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다. 안진걸씨는 광우병쇠고기위험물질을 정부에서도 인정한 국민건강상 심각한 문제였다며 평화적 방법의 촛불문화제의 정당성을 말하고 집시법위반적용은 표현의 자유침해라고 진술하다. 재판부는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이란 표현을 쓰면서 사법판단의 어려움을 내보이다. 재판이 끝나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법원 앞에서 광우병대책회의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 중단과 안진걸조직담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다.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717회 목요일집회를 열다. 이영성임

의장의 여는 말 권오한공동의장의 공안탄압규탄발언 등이 있었음.

● 서울고법형사합의2부 (재판장 박홍우부장판사)심리로 2006년 7월 2일 1차 공판이후 2년만에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구성 가입혐의 2차공판이 열리다 이날 재판은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짧게 끝나다. 이보다 앞서 법원 앞에서 한청주최로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를 촉구하다. 이규제 범민련 남측본부의장의 여는 말, 권오한양심수후원회장의 규탄발언, 이승호 한청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경찰은 ‘총파업촛불시위주도 ‘와’ 이랜드파업지지’ 등 혐의로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과 진영옥수석부위원장 이용식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민주노총들이 들어있는 영등포 대영빌딩에 결찰버스 20여대와 8개 중대 1000여 병력을 배치 검거에 나서는 행패를 부리다. 이에 맞서 이날 오후 7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독재정권의 무모한 도발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반노동 반민주 이명박정권 심판투쟁을 비타협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하다. 이석행위원장 천영세 민주노동당대표 한상열 진보연대대표 등 결의발언이 있었음. 이어 민주노총조합원들의 규탄집회가 열렸고다시 7차 촛불문화제를 같은 자리에서 진행하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위원장의 여는 말 박성환씨 등 노래공연 마당극단 ‘결판’의 공연이 이어지다. 문화제를 마치고도 200여 시민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경찰침탈에 맞서고 있었음.

25 -----

● 민주노동당은 이날 3기 당대표 결선투표를 마감한 결과당권자 37,471명 가운데 18,722명(50.28%)이 투표해 장기갑후보가 12,691명(68.3%)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고 밝히다. 이수호후보는 5,889명(31.7%)의 지지를 받는데 그치다.

● 서울 세종로 통일부 청사 앞에서 방북 만류 통보를 받은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등 3개의 민간단체와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민간교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통일부를 규탄하다. 참가자들은 ‘금강산피격사건의 진상규명과 민간단체들의 대규모 방북 허가 여부를 연계짓는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며 ‘통일부가 밝힌 사실상 민간교류 불허방침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국제무대에서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행보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자충수이다’고 정부의 사전 만류 통보에 대해 비판하다.

서울 영등포구 대영빌딩 3층 제2회의실에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표자회의를 열고 무건리 미군 훈련장 확장저지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연대기구인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무건리공대위)를 결성하다. 무건리 공대위에는 현재 평통사, 민주노총,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주노동당, 민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각계 분야에서 전국·지역 단위의 4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2시간 가량의 회의를 통해 무건리 공대위의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진행될 활동계획과 과제들을 논의하고 특히 국방부가 토지수용 고시를 강행할 경우 무건리 주민 상경투쟁과 무건리 공대위 소속 명의로 마을 곳곳에 팸플릿을 걸어 국방부의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침도 마련하다. 참가자들은 심문기 '오현지킴이 회장과 황선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이 공동으로 낭독한 결성 선언문에서 "국방부는 1996년 훈련장 확장계획을 발표한 이래 주민들에 대한 각종 인허가를 규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영농활동을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생활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뒤 강제적으로 주민들의 땅을 헐 값에 매수해왔다"며 "무건리 훈련장 확장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두 번이나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후원회 소식 201호를 회원 1016부 해외 16부 발송하다. 양심수에게 후원회소식과 민족2164부 발송하다.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른바 석궁사건의 김명호교수님을 장소이동 접견하였습니다. 김명호교수는 자신의 행위가 이 나라의 법치체가 아니라 그 법을 운용하는 법관들의 사악한 의도에서 석궁사위가 범죄로 둔갑되었음을 폭로하고 법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세상을 위해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으며 안에서 바라본 촛불시위나 여타의 진보적활동에 과학적인분석에 기초하여 유익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구노회 이광렬사무국장과 변외성, 김성환위원장 후원회 임미영 함께했습니다.

서울 보신각 앞에서 한국진보연대는 정전협정 체결55년을 맞아 '미군없는한반도평화협정체결촉구대회'를 열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150여명은 결의문에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 포럼도 머지않은 기간 내에 열리게 될 것"이라며 "북의 위협을 운운하며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거나, 한·미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도 더 이상 명분을 갖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하다. 이날 집회에 앞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도 '7.27 정전55주년 청년학생 반전평화대회'를 열어, 6.15 북측위 청

학분과위와의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다. 상징의식으로 '분단철조망'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미대사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2008년 회원 시사강좌 7월강좌가 열렸습니다. 이번 7월에는 "분단63년 분단정부 60년 한국전쟁 58년 외국군 주둔 63년에 즈음한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한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하였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민가협어머니들 회원들 함께 더위를 깨치는 강의에 참석하여 강의 듣고 현장제에 대한 토의를 하고 음식과이야기 나누며 연대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중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주한미군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실현운동 추진위원 및 길잡이' 주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관으로 '주한미군내보내고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실현한마당 <반갑다 평화, 잘가라 미군>'이 열리다. 개그맨 노정렬씨 사회로 민변 풍물패의 여는 한마당, 이은영고양푸른학교 반디교실대표의 여는 시, '평화와 통일의문을 열자', 빈들 이름나라 어린이 예술단의 합창 등 여는 마당에 이어 다짐마당으로는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조선)반도 평화협정안 발표'를 김형태 변호사가, 1차 평화협정 실현운동 보고 및 2차 운동계획을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가 발표하다. 이어 놀이패' 걸판'이 추진위원다짐' 마당극을 벌이다. 마지막으로 대동마당에서는 가수 손병희씨 울동 한국대학생문화연대 예술단 인천대공대 울동패공연이 있었고 '모두들 함께 열려라. 평화세상 마당'을 벌이다.

청계광장에서 '미친소 미친교육만대 이명박심판' 제80차 집중문화제가 열리다. 문화제를 마치고 3,000여 촛불대열은 보신각 앞과 종로가등에서 기두시위를 하다. 경찰은 광화문쪽과 안국동쪽 등을 겹겹으로 가로막고 있으면서 촛불대열의 해산을 방종하다가 갑자기 소화가루를 뿌리고 방패와 곤봉으로 무차별가격하는 폭력집안을 자행하다. 시위자들은 인도와 보신각안으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물대포를 쏘았으며 인도에 올라간 시민들까지 강제연행하다. 이날 10여 명이 연행되고 50대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가는 등 부상자가 속출하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전민특위 정유미동지 빈소에 문상다녀오다. 양심수후원회는 후원회이름으로 조화를 올리고 조위금을 내다. 김호현 소수영 임미영 권오현 함께 하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남북해외가 애도하는 가운데 '자주통일열사 정유미동지 민족통일장 영결식'이 진행되다. 고

인의 남편 차니클라인씨와 유족들 해외추조문단 전민특위 가입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성원 등 10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이규재법민련 남측본부의장의 조사 전민특위 북측본부 김완수위원장 과 615북측위 안경호위원장의 조사를 한 상렬남측본부위원장이 낭독하다. 또한 전민특위 해외본부 최철교위원장 등 조사는 김익태 미주본부 전위원이 낭독하다. 이도화 서울겨레하나청년위원의 조사낭독, 노래패 '아름다운청년' 회맹세 '회원들이 조가로' 심장에 남는 사람들 '을 부른다. 이어 정유미사무총장 투병 때 도와주었던 박정희님의 두이들 연우와 동훈이 하모니가 연주를 하다 춤패 춤으리 추모춤 정기열전사무총장의 호상인사 남편 차니클라인씨의 유족인사말 마지막으로 헌화를 하고 장지인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으로 떠나다. 하관식에는 낮1시 오종렬 진보연대상임대표와 권낙기 통일광장대표의 추도말 고인의 당숙인 정향수씨의 가족인사말 등이 있었고 평호를 함으로 장례식을 모두 마친다.

- 용산국방부 앞에서 평통사와 무건리주민대책위 등 공동으로 81차 평화군축집회'를 열고 국방부가 올해보다 88% 증액된 28조 9,923억원에 달하는 국방예산요구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다. 6자회담 진전에 따라 평화협정과 군축으로 가야할 마당에 이른바 방위비개선명목으로 8조 8,302억원을 책정 동포를 죽이는 첨단무기를 도입하려는 국방당국을 규탄하다.

30 -----

- 중구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서 어청수경철창장 등 경찰간부들이 함께 한 가운데 이른바 '경찰관기동대창설'을 갖고 기동대원들의 집회시위참가자 진압사연을 보이다. 경찰관 기동대는 17개 부대 990명의 규모이며 이 가운데 109명이 여성대원이다. 특수전압복을 갖춰입은 기동대원들은 5인1조 형태로 집회시위자 진압장면을 시범으로 보이다. 창설사에서 어청수경철창장은, 지금은 법질서확립을 위해 새롭게 달라진 경찰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시기 '라며 앞으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을 예고하다. 이에 맞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앞에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동대 창설은 사실상의 백골단 부활'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다. 대책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전의경제도 폐지가 유보된 상태에서 전의경과 경찰관 기동대가 동시에 운용되고 기동대가 과거처럼 '백골단'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백골단의 부활과 같은 것'이라고 우려하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이정희 민주노동당 원내 부대표 1991년 기동대 소속 전경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해 목숨을 잃었던 명지대학교 강경대군의 아버지 강민조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이 나라가 형제들을 죽이는 훈련을 하다니 통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이다.

- 비정규직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흥분회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이 50일에 이르고 있다. 파견제노동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노조건설을 한 이이유로 무더기 해고되어 이제 1000일을 훨씬 넘게 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식발투쟁 3보1배 고공농성 등을 벌여오고 있으나 기흥본사는 번번히 약속을 어기고 있다. 기흥전자 정문경비실 옥상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농성을 벌이던 노조원들이 탈진하고 위출혈 등 심각한 후유증으로 중단하고 지금은 김소연분회장과 유홍희조합원 두 명이 해결될 때까지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31 -----

- 촛불집회 진압명령을 반대하여 휴가 중 부대복귀를 거부하고 신원동 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이길준이경이 이날 성당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내 행동이 떳떳하기 때문에 공권력에 끌려가지 않고 당당하게 출두하겠다'고 밝힌 뒤 소속경찰서인 중앙경찰서로 출두하다. 김이경은 사법절차를 피하지 않고 법정에서 전의경폐지주장을 펼치겠다고 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광만부장판사>는 1982년 조작간첩사건으로 징역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루었던 차풍길씨가 신청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다. 차풍길씨는 재일총련계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온갖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 유죄판결을 받았었음. 재심재판부는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했다거나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다. 이보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차풍길씨의 간첩조작 사건 진정을 조사한 뒤 국가에 재심을 권고한 바 있었음.

- 30일에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공정택후보가 499,254표(40.09%)를 얻어 477,101표(38.31%)를 얻은 주경복후보를 가까스로 누르고 당선되다. 총 8,084,574 유권자 가운데 15.4%인 1,244,033명이 투표했으며 25개 자치구 중 공후보는 강남지역 8개자치구만 이기고 17개 자치구에서는 패배하다.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18회 목요집회를 열다. 집회에서는 광우병최고기 반대촛불문화제와 관련 구축된 양심수들 사례발표와 석방촉구내용으로 진행한다.